

2019-CR-07

작은연구 좋은서울 19-07

# 홈리스(노숙·가출·가정 밖) 청소년 경로분석을 통한 정책제안

이형기, 김태훈, 유한석, 이승범, 조범수, 진성일, 한상준



**홈리스(노숙·가출·가정 밖)  
청소년 경로분석을 통한 정책제안**



## 연구책임

이형기 넷임팩트코리아 대표

(과제총괄)

## 연구진

이승범 Foundation University in the Philippines 교수

(사례조사)

한상준 성균관대학교 심리학 대학원생

(국내 문헌조사)

김태훈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 대학생

(국내 문헌조사)

유한석 고등학교 졸업, 프리랜서

(전문가 인터뷰 수행)

진성일 Seneca College 사회복지학 대학생

(캐나다 사례조사)

조범수 서울국제고등학교 1학년

(이해관계자 인터뷰)

## 조사원

김경주 청심국제고등학교 2학년

(미국 사례조사)

김조셉 Asia Pacific International School 12학년

(캐나다 사례조사)

강유진 Ivy Collegiate School 11학년

(탈북청소년 사례조사)

장윤제 청심국제중학교 2학년

(녹취기록 전사)

기하영 서울마곡중학교 3학년

(역할극 사례조사)

손건희 서울 대원국제중학교 1학년

(역할극 기획·수행)

이주홍 서울 환일중학교 1학년

(역할극 기획·수행)

유경채 일산 한수중학교 1학년

(역할극 기획·수행)

최하은 파주 한빛중학교 1학년

(역할극 기획·수행)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 목차

<b>1. 연구배경 및 목적</b>	<b>1</b>
<b>2.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한 고찰</b>	<b>3</b>
(1) 청소년에 대한 정의	3
(2) 청소년에 대한 일반적 이해	4
(3) 청소년에 대한 미시적 이해: 한국 청소년의 현실	5
(4) 흡리스(노숙)의 정의	8
(5) 가출의 정의	13
(6) 노숙 및 가출의 원인	15
<b>3. 연구방법</b>	<b>17</b>
(1) 문헌 조사	17
(2) 청소년지원기관 종사자 인터뷰	17
(3) 전문가 자문	17
(4) 전문가 간담회(FGI)	17
(5) 심층 인터뷰(IDI)	17
<b>4. 연구결과</b>	<b>27</b>
(1) 가출이 아니라 탈출이다	27
(2) 가출 직후 달라지는 삶	27
(3) 나쁜 아이들이 아니라 아픈 아이들이다	28
(4) 돌아갈 곳이 없는 이들에게 진정한 자립을 위한 삶	29
(5) 진정한 관계 맺기를 통해 인간은 성장한다	30

<b>5. (국내·외) 기출청소년 관련 사례조사</b>	<b>31</b>
(1) 벤치마킹 프로그램 사례	33
<b>6. 결론</b>	<b>35</b>
(1) 정책 제안	36
<b>참고문헌</b>	<b>39</b>
<b>별첨 1: 참여연구진 후기</b>	<b>42</b>
(1) 손건희	42
(2) 최하은	43
(3) 유한석	44
(4) 기하영	45
(5) 김태훈	46
(6) 장운제	47
(7) 한상준	48
(8) 김조셉	49
(9) 강유진	50
(10) 유경채	51
(11) 진성일	52
(12) 김경주	53
(13) 이주홍	54
(14) 조범수	55
<b>별첨 2: 기출 및 노숙 청소년 마인트페인팅</b>	<b>56</b>

---

# 표 목차

[표 1] ETHOS 단계별 흠리스 정의와 내용	9
[표 2] 심층 인터뷰(IDI) 조사 개요	18
[표 3] (반복 인터뷰)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8
[표 4] FGI 연구와 내러티브 연구 비교	19
[표 5] 내러티브 연구방법론에 맞춘 질문	21

---

## 그림 목차

[그림 1] 가출청소년의 개념적 특성

14

---

##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이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1)</sup> 2015년 경찰청은 ‘가출청소년’ 수를 28만 명으로 추계했고, 탈가정 청소년 담당 부서인 여성가족부는 2017년 10월 27일 보도자료에서 “실제 가출청소년 수는 약 27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결코 적지 않은 인구다.

성인과 달리 청소년의 가출 행동은 그 이유와 관계없이 비행, 일탈로 접근하여 여전히 관련법에서는 가출청소년을 우범소년(虞犯少年)으로 규정하고 있다.<sup>2)</sup> 일반적으로 ‘가출청소년’이라고 불리는 청소년들은 위기 청소년으로 비치는데, 이러한 청소년들이 집을 나온 주된 원인은 가정 내 불화와 방임이다. 가정 밖으로 나온 위기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연유로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배고픔에 시달리다가 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급기야 성매매를 일삼기도 한다. 더군다나 이들의 눈높이에서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하는 대다수 청소년보호시설은 위기청소년을 계도나 교정의 대상으로 접근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 가출행태와 동향을 보면 청소년기 가출행위를 예방하는 것보다는 청소년이 가정의 보호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과정, 가출 이후 ‘가정 밖’이라는 취약한 상황, 그리고 거리에서 생존하는 과정에서 겪는 부정적인 사회 경험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정책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sup>3)</sup>

본 연구진들이 청소년 이동 쉼터에서 만난 ‘재식’과 ‘수지’도 27만 탈가정 청소년 중에 속해있다.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하<sup>4)</sup>)으로 분류되는 수지(17세)는 15세에 집을 나와서 현재 의정부 다가구주택에서 월세 50만 원을 내고 재식(21세)과 1년 넘게 동거생활을 하고 있다. 이 둘 사이에는 현재 9개월 된 아이가 있다. 재식은 홈플러스에서 파트타임으로, 수지는 노래방에서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 재식은 재산범죄(물품사기)로 12개월 소년원 경험이 있다.

1) 김지연,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12

2) 김지연,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12

3) 권미혁 의원, 「가출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나눔일보, 2017.03

4) 유상현,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비행 심리경험에 대한 해석 현상학적 분석」,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2019

본 연구는 이들 가출(임박) 및 위기(비행) 청소년(들)이 회고적(retrospective) 관점에서 현재 시점까지의 삶의 경험을 맥락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가출(비행) 이전 시점의 가출(비행) 원인과 관련하여 가출(비행) 위험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이를 근거로 가출(비행)로 진입하는 경로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이들의 보호자로부터 독립 및 자립하게 되는 과정도 알아보았다. 가출 이후 또는 가출(비행) 임박 전후 이들의 학교 생활, 학교 밖 생활(대인관계 및 일자리) 그리고 청소년지원기관서비스 이용 실태 등을 분석하였다.

한편, 청소년 가출경험자들의 경우 비행(범죄) 요인이 두드러져서 가해자로서 보호시설 경험이 많았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가출(비행) 이전에는 왕따, 괴롭힘, (가정 또는 학교) 폭력 등 피해자 경험을 많이 하였으나 가출 이후는 생계유지를 위해 금품갈취, 물품사기, 성매매, 명의대여, 명의도용 등 가해자의 입장으로 변화되었다. 대검찰청의 2018년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소년범죄 발생비가 가장 높은 범죄군은 재산범죄이며 그다음은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강력범죄(흉악)의 순이었다. 다른 범죄군은 지난 10년간 증감률이 감소한 반면, 강력범죄(흉악)는 29.6% 증가하고 있다.<sup>5)</sup> 이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의 비행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sup>6)</sup> 대부분의 사람은 청소년기에 한두 가지의 가벼운 범죄를 저지르며, 성년기로 접어들면서 일탈을 중단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청소년의 비행 경력이 쌓이는 과정에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소년범죄의 상습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성인범죄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들이 만나본 대부분의 가출(탈가정) 및 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거나 부모와의 갈등, 가족해체 과정에서 상처 및 사랑결핍 등을 느낀 경험이 많으며 이를 포용해주지 못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탈출하고 싶은 욕구가 맞물려 일탈이 시작되었다.<sup>7)</sup>

기존의 연구들이 청소년 비행 발생 원인과 과정을 분석하여 비행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예방 차원의 해결책 제언에 집중했다면 본 연구는 청소년기 탈가정 행위에 대한 예방적 접근보다는 청소년이 가정의 울타리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과정, 가출 이후 '탈가

5) 김경타임즈, "2018년 상반기 청소년범죄 분석 및 하반기 대응강화 계획",

<http://www.e112.kr/board.php?board=news001&command=body&no=709&>

6) 이수정, 『비행, 일탈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실시 현황조사 및 분석』, 보건복지부, 2017

7) 김시아, 정익중, 『비행청소년의 탈비행 너머: 돕는자로서의 삶』,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9, vol.50, no.1, pp. 71-100

정'이라는 현실적 상황, 그리고 거리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부정적 요인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에 집중하고자 한다.

## 2.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한 고찰

### (1) 청소년에 대한 정의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청년과 소년을 지칭하는 말로, 대체로 사춘기를 시작하는 12~13세부터 24~25세까지로 본다. 1940년 스탠리 홀(G.Stanly Hall)이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이래, 연령기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청소년이란 말은 영어의 'adolescence'라고 하며 이 단어는 라틴어의 'adolescere'에서 유래한 말로 그 뜻은 '성장하다(to grow up)' 혹은 '성숙하다(to grow to maturity)'의 의미가 있다.<sup>8)</sup> 이는 청소년기가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소위 '성숙기', '성숙 과정의 시기', '성숙을 완성하고 있는 시기'를 뜻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영어의 'adolescent'를 우리말의 '청소년'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adolescent'는 생물학적 관점의 발달 단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호르몬과 성장 변화 등이 일어나는 시기를 지칭할 때 사용한다.<sup>9)</sup>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아동복지법」 상에서 말하는 아동과 관련한 청소년지원기관(자립지원시설)에서는 시설 퇴소 아동 중 취업 중인 아동, 시설 퇴소 아동 중 취업 준비 중인 18세 이상 25세 미만인 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25세 미만인 자를 모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25세 미만의 연령대가 청소년으로 포함된다. 한편, 유럽의 경우 공식적으로 청소년 혹은 청년(young adult, youth)은 15~24세를 말하며(European Commission), 미국 등의 비유럽권도 유사한 연령 구분을 따른다.<sup>10)</sup>

8) 네이버 블로그, "청소년기의 특징과 한국 청소년의 현실", <https://blog.naver.com/idream2030/220018276452>

9) 김소영, 「청년노숙 경로에 관한 연구: 노숙진입과 노숙생활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사회복지학), 2016

10) 김소영, 「청년노숙 경로에 관한 연구: 노숙진입과 노숙생활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사회복지학), 2016

본 연구에서는 13세부터 22세까지로 연령 범위를 채택하여 청소년으로 규정하겠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을 부모나 보호자의 보호와 통제를 받는 중고교 청소년 대상에 집중하기 위해서이다.

## (2) 청소년에 대한 일반적 이해

청소년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며 청소년기는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되는 필요한 자질이 개발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우리 사회의 미래는 오늘의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1940년 홀이 ‘청소년’(adolescence)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이래, 이 연령기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sup>11)</sup> 특히 2차 대전과 6·25전쟁을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 붐(baby boom)이 일어났고,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sup>12)</sup> 그러나 이제 출산율 감소와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년 인구 비율의 증가로 말미암아 청소년 인구비가 줄어들고 있다.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올해 학령인구(6~21세)는 804만7000명으로 총인구의 15.6%이었다.<sup>13)</sup> 학령인구가 제일 많았던 1980년(14,401,000명)과 비교하면 매우 큰 폭으로 줄었다. 이 기간에 전체 인구에서 학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7.8%에서 15.5%로 급감한 셈이다. 앞으로 학령인구는 계속 줄어 2029년에는 6,249,000명, 2051년에는 4,994,000명까지 내려앉을 전망이다.<sup>14)</sup>

한편, 생물학적으로 청소년기는 초경 등 성호르몬의 분비와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11~12세 정도부터 시작하여, 추상적 사고 능력과 자아 정체감 형성이 이루어지는 18~20세 경까지를 말하는데 이 시기에는 성장 폭발(growth spurt)을 경험하며, 여자가 남자보다 약 2년 정도 빨리 경험한다.<sup>15)</sup> 청소년기를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데 청소년 초기에는 생물학적 변화는 시작되나 심리적으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시기로, 청소년 자신들은 자신의 사고와 충동을 보고 놀라게 된다.<sup>16)</sup> 청소년 후기에는 신체적, 생리적 성숙과 심리적 발달 및 적용이 함께 공고히 통합되는 시기이다.<sup>17)</sup>

11) 다음 블로그, “청소년 성폭력의 정의”, [http://blog.daum.net/lee\\_ys/5649969](http://blog.daum.net/lee_ys/5649969)

12) 김용태, 「청소년 문제 해결방안으로서의 교회 교육」, 목원대학교, 1998

13) 통계청 홈페이지, “2019 청소년 통계”, 2019

14) 중앙일보, “학생 수가 줄면 대학 가기 쉬워질까?”, <https://news.joins.com/article/23424558>

15) 크리스천투데이, “중2병’으로 대표되는 청소년들만의 상담적 특징”,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283372>

16) 네이버 블로그, “청소년 문화와 기독교 윤리”, <https://blog.naver.com/kji12345/30111954784>

17) 박인호, 「청소년 신앙발달 단계를 통한 교회교육 프로그램 방안 연구」, 목원대학교, 2004



보건복지부가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아동종합실태조사를 한 결과, 9~17세 아동과 중·고등학생 2,219명의 개인 행복도 점수가 10점 만점에 6.57점이었는데, 빈곤가정 아동은 미래 안정성 만족도에서 5.95점으로 아동 연령이나 소득수준 등 전체 분류 대상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sup>18)</sup>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행복도는 최하위권이다. 2018년 조사에서 11세와 13세, 15세의 삶의 만족도는 평균 6.62점으로 산출됐는데 이는 '2015년 OECD 웰빙지수'에서 측정한 27개국(한국 제외) 아동의 평균 삶의 만족도(7.6점)보다 1점 가까이 낮은 것이다.<sup>19)</sup>

## 2. 학교

학교 교육은 청소년에게 사회에서의 순응·적응을 위한 자질과 역량을 길러준다. 즉, 학교생활은 청소년에게 일정한 규범을 준수케 하며, 자제와 질서순응 체계를 길러 주어 사회가 요구하는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준다. 그러나 1946년의 제정 교육법과 더불어 시작한 한국의 학교제도는 4차 산업혁명에 이르는 오늘까지도 70여 년의 세월 그 대로이다. 그동안 양적 팽창에는 성공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입시경쟁, SKY 캐슬 사교육, 생각 없는 아이들, 학교의 붕괴 등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고통에 직면하고 있다.<sup>20)</sup> 다시 말해, 오늘날의 학교 교육은 자·덕·체를 겸비한 인격체를 인큐베이션하는 것이 아니라 입시를 위한 전쟁터인 것이다. 이러한 과도한 입시 위주의 무한경쟁에서 도태된 청소년들은 가정 및 학교 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이 되기보다는 자존감의 실추를 경험하면서 불안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다. 다시 말해, 대다수 청소년이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채 낮은 자존감과 좌절감으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교육부가 올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초·중·고 4학년~고교 3학년 약 372만 명 중 6만여 명이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sup>21)</sup> 피해 응답률은 2017년 0.9%에서 지난해 1.3%, 올해 1.6%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이 3.6%로 중학생(0.8%), 고등학생(0.4%)

18) "아동종합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2018

19) 국민일보, "한국 아동·청소년 행복 수준, 여전히 OECD 최하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647110&code=61121111&sid1=soc>

20) 여성소비자신문, "미래를 위한 교육혁명, '고등학교를 진로학교로 바꾸자'", <http://www.wsobi.com/news/articleView.html?idxno=76613>

21)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교육부, 2019

응답률을 크게 웃돌았다. 피해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5.6%를 차지했고 집단따돌림이 23.2%, 사이버 괴롭힘이 8.9%로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집단따돌림이 다른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 3. 사회

1960년대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에는 국민 대다수가 배고픔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누구를 기대하고 살 수가 없었다. 이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세계 10대 교역 국가이지만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이 잘되는 것에 민감하기로 유명하다. 다른 민족에 비해 비교의식이 특히 발달해 있다. 이를테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생겨난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다. 남이 잘되는 것에 대한 질투가 많고 남들과 다르게 비치는 현실에 힘들어하는 경향이 강하다.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도 절대적 가난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특정 계층에 밀려나고 소외된 하층민들이 가진 상대적 박탈감을 바로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은 사회에 저항, 분노 및 불만을 만들어낸다.

우리나라는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이러한 상대적 빈곤의식(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 20~30대는 취업문제가 청년들을 압박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시직과 정규직, 아르바이트까지 경쟁과 갈등이 치열하다. 40~50대는 직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고, 60~70대는 소득 감소와 생활 궁핍이라는 현실에 직면해 100세 시대에 걸맞은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가 태반이다.<sup>22)</sup>

최근 조국 사태 관련하여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대거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보수 집회에 참석하였다. 평소 자녀들에게 ‘정치’의 ‘정(政)’도 꺼내 본 적 없었을 학부모가 대다수일 것이다. 한 학부모는 “진보, 보수 등 진영 논리가 아니라, 학부모로서 화가 났다”며 “배신감과 인턴이나 스펀 짜기 등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박탈감에 집회를 처음 나오게 됐다”고 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의와 공정이 화두다. 지난 11월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한 청소년은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22) 충청매일, “상대적 빈곤의식을 넘어서”,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934#09SX>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병폐는 학벌 위주와 외모지상주의이다. 2030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외모도 경쟁력'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뜻하지 않게 혜택을 받거나 피해를 경험하는 등 '사회생활 중 외모로 인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직장인도 5명 중 3명꼴로 높게 나타났다.<sup>23)</sup> 또한 학연과 지연이 개인적 출세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우리 사회는 인간의 가치를 본질이 아닌 외적인 것에서 찾도록 조장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들은 우리 사회가 어려운 때일수록 온 국민이 함께하고 한 곳에 '올인'하는 역동성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이미 '금 모으기'로 화제를 모았던 국제통화기금(IMF) 때나 2002년 월드컵 당시 길거리 응원 등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응집력과 추진력을 부러워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힘든 사람이 있으면 당겨주고 이끌어주는 한국사회의 전통적 미덕도 손에 꼽는다.

#### (4) 홈리스(노숙)의 정의

홈리스 관련 대부분의 연구는 '사전적인 의미의 홈리스(literal homeless)'에 기반을 두어 홈리스를 정의한다. '집'(home<sup>24)</sup>)은 개인이 독립된 공간에서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강화할 수 있는 곳이다. '집'을 한가지의 의미로 정의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노숙(homelessness)은 지붕이 없음(rooflessness; 떠돌이 생활), 주택이 없음(houselessness; 위기구조시설이나 장기 시설에서의 거주), 숙소의 부족(inadequate housing; 열악한 주거환경, 비자발적 동거)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노숙인(homeless)이란 일정한 숙소가 없이 길거리에서 지는 사람을 일컫을 뿐만 아니라 일시 보호시설이나 쉼터 등의 숙소를 임시거처로 활용하는 사람과 적절한 심리적 정서적인 안식처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까지를 포함하고 있다.<sup>25)</sup>

유럽의 경우, 일반적으로 FEANTSA<sup>26)</sup>에서 만든 홈리스와 주택거주자의 사회적 배제 유형화(European Typology of Homelessness and Housing Exclusion, ETHOS)의

23) 잡코리아 네이버 포스트, "직장인 89% '외모도 경쟁력'... 56% '외모로 인한 차별 경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1626589&memberNo=9028903&vType=VERTICAL>

24) home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의 집, 자택, 가정, 가족, 고향, 조국 같은 곳 등이다. 즉 home은 거주하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식처로서의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ome을 집으로 번역하되,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의미와 정서적인 안식처로서의 의미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25) 임밖네, 「청소년의 노숙기간과 노숙반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8

26) FEANTSA는 EU(European Union)의 지원을 받고 있는 유럽 노숙 서비스 제공자들의 네트워크이다. 유럽에는 공식적으로 노숙에 대한 단일한 정의는 없다. 그러나 2010년 EU Council of the Regions는 최근 유럽 각국에 ETHOS의 노숙 유형화를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네 단계로 홈리스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홈리스 연구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주거 거리생활자(roofless)로 밖에서 혹은 길가에서 노숙하는 사람들, 그리고 24시간 노숙자 임시 쉼터(shelter) 등에서 체류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두 번째 단계는 집이 없다는 뜻의 ‘하우스리스(Houseless)’로, 단기 쉼터를 포함한 보호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이를테면, 응급 및 교정시설 등에서 나왔으나 마땅히 거처할 곳이 없어 홈리스가 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친구나 친척 집에 거주 또는 창고, 지하 주차장, 빈 건물 등 취약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해당한다.

[표 1] ETHOS 단계별 홈리스 정의와 내용

단계	명칭	내용	구체적 거주지
1단계	무주거 거리생활자 (roofless)	일시보호시설 이용자	공원, 역사, 거리, 일시쉼터
2단계	비주거 생활 (houseless)	보호시설, 병원 등 거주자로 자신만의 거처가 없는 사람	보호시설, 쉼터, 병원, 소년원, 교도소
3단계	취약한 주거 (insecure)	친구나 친척 집에 살거나, 철거예정 건물 등에 사는 사람, 강제퇴거 예정자, 가정상습폭력 등의 피해자	친구나 친척 집 얹혀살기, 폐건물, 퇴거 임박자
4단계	부적절 주거 (inadequate)	가건물 혹은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물 에서 거주하는 경우, 밀실 등 적합하지 못한 공간에서 생활 등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생활자, PC방, 찜질방, 패스트푸드점 등 다중이용시설 생활자

본 연구의 과제는 이 네 단계 중 어느 단계까지를 청소년 노숙의 범위로 규정하느냐는 것이다. 이를테면, 거리생활자로 관찰되는 대상자만을 노숙으로 할 것인지, 또는 일시쉼터를 포함한 보호시설 이용자로 청소년 노숙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취약하거나 (insecure)가 부적절한(inadequate) 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까지를 청소년 노숙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보호시설과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숙인만으로 청소년 노숙의 범위를 제한할 경우,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청소년 특성상) 이를 회피하는 상당수의 홈리스 청소년들의 존재를 누락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숨어 있는 홈리스’는 거리생활을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의 눈에 띄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거나 노숙인 보호시설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친구나 지인의 집에 얹혀살며 거실, 쪽방, 창고 등에서 잠을 자는 경우 등 이러한 유형들은 전혀 홈리스로 포착되지 않지만 숨어 있는 홈리스이다.

본 연구의 연구진들이 인터뷰한 대다수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가출(노숙) 생활을 기꺼이 드러내려 하지 않았고, 외관상 홈리스(탈가정, 가출 및 비행청소년)로 비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가급적이면 노숙인 지원기관(청소년 쉼터)이나 위기청소년 지원 시설을 이용하거나 거리노숙을 하기보다는 쉼다는 이유로 취약하거나 불안정한 장소임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 노숙의 경우는 숨겨진 노숙(가출) 그룹에 대한 고려가 매우 필요하다. 즉, 우리가 관찰 및 인터뷰한 가출(임박)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가출 시점 직후에는 PC방, 짬짬방, 편의점 등과 같은 곳에서 가출 상태를 지속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노숙 개념을 채택하고자 한다. 다만 연구과제 제출 시한 및 대상자에 대한 파악 및 접근 등 현실적 제약으로 불안전 주거나 부적절 주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충분히 만나지는 못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주 대상으로 채택된 청소년 노숙인(가출청소년)들은 실질적으로는 청소년 쉼터나 소년원 등 시설에서 기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우리나라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노숙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sup>27)</sup>

제2조 (정의)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상당한 기간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나)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다) 상당한 기간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2016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년 10월 노숙인 수는 1만 1,340명으로, 이중 거리노숙인은 1,522명, 이용시설(일시보호시설)노숙인 493명, 생활시설(자활·재활·요양)노숙인 9,325명이며, 쪽방주민 6,192명으로 조사되었다.<sup>28)</sup> 노숙

27)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2148](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2148)

28) 김대윤, 「한국사회 노숙인의 사회복지 현황과 과제」, 원광대학교, 2018

인 중 남성이 73.5%, 여성이 2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쪽방주민 중에서는 남성이 80.8%, 여성이 19.2%로 조사되었다.<sup>29)</sup> 시설노숙인의 경우 50대(33.4%)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60대(27.5%), 40대(17.8%), 70대(11.1%)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노숙인 중 2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노숙인의 비율은 7.7%로 나타났으며, 노숙인 자활시설에 청년이 가장 많은 것(15.4%)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법적 정의에는 해당하지만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홈리스들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테면, 제2조 1항의 (가)에서 말하는 ‘상당한 기간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중에는 거리에 사는 거리노숙인 외에도 친구 집이나 친척 집에서 더부살이하거나 사우나, PC방, 만화방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할 수 없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sup>30)</sup> (나)의 경우에도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일시쉼터를 포함한 노숙인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만을 포함했다. 또한 (다)의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쪽방 거주자만을 노숙인으로 포함하였으나 쪽방에 준하는 열악한 환경으로 노숙인 밀집지역에 있는 고시원이나 여관 등은 노숙인의 임시거처로 사실상 그 기능이 쪽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sup>31)</sup> 오히려 최근 국일고시원 화재사건을 통해 드러났듯이 서울시와 소방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 서울시에는 총 5,840개소(16만 명 거주)의 고시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 소재 고시원의 18%인 1,061개소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쪽방보다 고시원이나 여관 등이 거주지로서의 취약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대다수 가출(노숙)청소년들이 친구 또는 친척 집에서 얹혀살거나 고시원 및 여관 등의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가출 관련 지원 서비스만을 이용하고 있어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홈리스(노숙)의 정의를 확대·적용하여 가출 후 숨겨진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삼는다. 즉, 거리생활자, 일시쉼터뿐만 아니라 친구 집이나 친척 집에서 더부살이 및 PC

29) 보건복지부, “2016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대책(안)”

30) 다음 블로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3단비교”, <http://blog.daum.net/ibada21/13548279>

31) 참여연대 홈페이지, “홈리스, 빈곤의 극단에서 만나는 명의도용 피해실태”,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142483>

방, 여관, 찜질방 등에서 숙식 경험 등이 있다면 모두 홈리스(노숙) 경험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진들이 조사 대상자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발견한 중요한 지점은 노숙인 정의에서의 연령 제한이다. 우리나라의 「노숙인 법」의 노숙인 정의는 앞서 살펴본 바대로 노숙인을 거주 장소를 통해 정의함과 동시에 연령을 통해서도 정의하고 있는데, 「노숙인 법」 제2조 노숙인 정의에 따른 시행규칙에서는 18세 이상만을 노숙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18세 미만의 경우, 사실상 홈리스(노숙) 상태이지만 이들은 정작 노숙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32)</sup> 이는 정책 대상에 대한 연령 구분에서 기인한 것으로 9세~18세 청소년과 보호시설 퇴소 이후 관련 서비스를 지속해서 이용하는 24세까지의 청소년은 모두 여성가족부 소관 하에 있고, 「노숙인 법」에서는 18세 이상의 노숙인만을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여 보건복지부 노숙인 지원 정책 분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집이 없는 상태(가출 또는 가정 밖)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18세 미만은 가출(가정 밖)청소년으로, 18세 이상은 노숙인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속에서 보호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어 완전한 청소년도, 완전한 성인도 아닌 전환기에 있는 노숙(가출 또는 가정 밖)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2019년 9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에 대해 2017년 학교 밖 아동청소년(만7세~18세)은 41만 명이 넘고, 가정 밖 아동청소년은 27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이 우리나라 GDP에 비례하지 않는다며 증가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sup>33)</sup> 더불어 2016년 한 해 청소년 쉼터를 찾은 29,256명의 청소년 가운데 무단이탈, 자의퇴소, 무단퇴소 등 제 발로 쉼터를 나갔으며,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들이 퇴소 후 추적이 가능한 경우는 41.1%에 그친 상태로, 현재 한국에서 노숙·가정 밖·가출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일한 지원 방식인 청소년 쉼터는 전체의 절반 이상이 이들 아동청소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sup>34)</sup>

한편, 2015년 국회방송 ‘현장리포트 공존’의 “가출청소년, 버려진 미래”에서는 중·고등

32) 김소영, 「청년노숙 경로에 관한 연구: 노숙진입과 노숙생활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사회복지학), 2016

3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34) 내일신문, “학교·가정 밖 아동청소년 지원 절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32034](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32034)

학생 중 한 번 이상 가출 경험이 있는 사람이 12.2%라는 2012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근거하여 가정 밖·노숙·가출청소년 수를 45만 명으로 추산했다. 2015년 경찰청은 ‘가출 청소년’ 수를 28만 명으로 추계했고, 2016년 KBS 뉴스 ‘갈 곳 없는 아이들, 가출 그 이후’는 관계기관이 추산하고 있는 가정 밖·노숙·가출청소년의 규모를 20~24만 명이라고 보도했다.<sup>35)</sup> 가정 밖 청소년 담당 부서인 여성가족부는 2017년 10월 27일 보도자료에서 “실제 가출청소년 수는 약 27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다.

### (5) 가출의 정의

가출(家出, runaways)은 말 그대로 집을 나온 상황이다. 가출청소년의 개념과 연령은 학자마다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가출을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은 행위’로 정의한다.(여성가족부)<sup>36)</sup> 다시 말해 청소년이 집을 나온 행위를 비행, 일탈로 규정하여 가정에서 이탈한 청소년을 개입을 통해 귀가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처럼 일탈·비행의 관점에서 가출 ‘행위’에 초점을 두고 정책대상의 개념을 정의하게 되면, 이들 청소년이 놓인 ‘맥락’을 놓치기 쉽다. 즉 여성가족부의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폭력·방임을 포함하여 부모나 보호자가 청소년기 자녀의 가출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돌아갈 가정이 없는 홈리스(노숙)청소년 지원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가출 및 홈리스 청소년 법(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에서 가출, 노숙을 모두 명시하여 두 집단의 다른 욕구와 특성을 기반으로 정책지원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쉼터와 같은 시설생활을 하는 청소년도 주거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홈리스(노숙)의 범주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 즉 가출청소년의 행위보다는 이들의 ‘취약성(vulnerability)’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대상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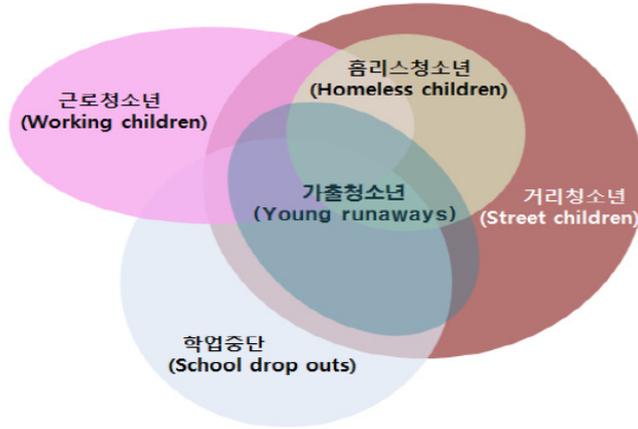
35) 비마이너, “탈가정 청소년들의 거리 생존 분투기”,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019&thread=04r01>

36) 지식몰 리포트, “청소년 복지론(청소년 가출)”,

<http://m.jisikmall.com/685763.%EC%B2%AD%EC%86%8C%EB%85%84%EB%B3%B5%EC%A7%80%EB%A1%A0%EA%B0%80%EC%B6%9C>

가출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세계적 경향 역시 가출뿐 아니라 노숙(길거리)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지원 목표로 설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림 1] 가출청소년의 개념적 특성



출처: Volpi(2002), p.3.

우리나라는 2012년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정으로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면서 가출청소년의 정책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동법 제16조) 여기에는 가출에 대한 예방적 접근과 가정복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상담,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을 포함한다.<sup>37)</sup>

본 연구에서는 ‘가출’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가정 밖’, ‘탈가정’, ‘노숙’, ‘홈리스’ 청소년 등으로 혼용·병기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서 허락 없이 24시간 이상 가정으로 복귀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거주가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설령 있다 하더라도 취약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22세 이하 청소년’으로 정의한다. 이는 현행 정책대상은 결과에 초점을 둔 정의라는 것을 전제로 가출·노숙·가정 밖·탈가정 청소년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 맥락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기인한다.

37) 김지연,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단,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쉼터 이용 대상은 24세 이하 가출청소년이나, 쉼터 운영 지침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여 입소 대상자 선정 시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1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2순위로 명시함.

## (6) 노숙 및 가출의 원인

왜 청소년들은 가출하여 노숙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청소년 노숙의 원인에 대한 (국내·외) 문헌 조사를 수행하면서 이 연령대의 가출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다루는 자료는 비교적 많지 않았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성인 노숙인의 노숙 원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청소년 노숙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홈리스 관련해 많은 연구 자료들은 홈리스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각적이고도 심층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노숙의 경우 경제적인 원인에서부터 심리·정서적 원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요인이 관련되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숙의 원인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에 따라 다양한 현상이 노숙의 원인으로 언급될 수 있다고 말한다.<sup>38)</sup>

홈리스 청소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홈리스 청소년을 정형화할 수 없으며 홈리스 청소년이 되는 데 한 가지 원인만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다시 말해, 어떤 특정한 경험이나 요인이 청소년이 탈가정하게 되는 핵심 동인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어렵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이 탈가정하게 되는 요인에 대한 논의들을 요약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인 사회·심리·행동적 요인들로 성인 노숙자들과 마찬가지로 홈리스 청소년 중 많은 수가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 등과 같은 질환을 경험하고 있었고 이는 아동학대, 부모의 상습음주, 청소년 자신의 본드 중독 등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다고 보고된다.

둘째, 가족 요인을 들 수 있다. 이를테면, 청소년 학대와 무관심·방임·방치의 경험은 청소년들이 비행(가출·노숙)을 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청소년 가출·노숙의 1차적인 이유가 가족 갈등에 있으며, 갈등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이러한 갈등은 학대나 방임을 수반한다. 본 연구진들이 가출 이력이 있는 청소년들과 인터뷰에서도 이들은 정상적인 가정

38) 임박네, 「청소년의 노숙기간과 노숙반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8

의 청소년들과 비교해서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가 신체적 또는 언어적으로 공격적이었고 이들도 그들에게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 부모와 다른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성적 학대로 인해 청소년들은 집에서 탈출하여 노숙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만난 가출 이력이 있는 청소년들의 부모들은 대체로 교육수준이 낮았고 일용직과 같은 불안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즉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가정에서 거의 방임·방치되어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거나,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으로 인한 불안한 가정환경 등은 청소년들을 집 밖으로 뛰쳐나오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었다.

셋째, 학교생활과 또래 친구들 관련 요인이다. 학교는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 있어서 학습을 통해 규칙과 규범을 배우는 가정(가족) 외의 사회화 장소로서 진로탐색, 교사 및 급우와의 인간관계를 형성·강화하여 자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 학교생활에서 청소년들에게 생활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교육환경, 교사관계 그리고 또래(급우)와의 관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서 학교 내·외의 또래와의 관계는 청소년들이 비행·일탈(가출·노숙)을 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정에서 거부당하고 학교에서도 왕따·따돌림 등으로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다른 또래관계에서 친밀감, 대리만족, 소속감 및 해방감 등을 추구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연구진들이 만난 가출 이력이 있는 청소년들은 가출·노숙을 결코 쉽게 결정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집을 떠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식하여 집 밖으로 나와서는 가출 경험이 있는 또래들로부터 더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가출(노숙) 생활에 적응되고 만성화된 청소년들의 경우 그들만의 노숙 커뮤니티와 문화를 형성하여 거리에서 생존하는 법을 익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3. 연구방법

#### (1) 문헌 조사

청소년 가출·노숙의 원인과 특성, 가출·노숙의 영향요인, 가출·노숙청소년에 대한 접근방식 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특히 정책대상으로서의 가출·노숙·가정 빈·탈가정 청소년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선행연구의 동향과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책 현황을 고찰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구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 (2) 청소년지원기관 종사자 인터뷰

가출·노숙 청소년 보호지원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쉼터의 운영 현황 실태와 니즈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 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여기에는 시설의 일반 현황, 가출청소년의 발견(발굴), 보호, 퇴소단계별 관계기관 간의 연계 현황, 쉼터에서 보호하는 청소년의 상태와 특성 등을 주요 질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 (3) 전문가 자문

과제수행 방법 및 세부 내용을 정하고 주요 현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소 및 청소년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 미팅을 하였다.

#### (4) 전문가 간담회(FGI)

청소년 소년원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이 요구되는 쟁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주 소년원을 통해 교육·멘토링 분과 10여 명의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한 차례의 FGI를 진행하였다. FGI를 통해 현안 파악과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5) 심층 인터뷰(IDI)

가출로 보호시설을 이용했거나 또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노숙 경험이 있는 가출청소년 및 현재 소년원 시설 입소 중인 청소년을 포함하여 사실상 홈리스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이들의 생각과 직면한 문제 및 니즈를 파악하여 정책 제안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인터뷰 대상을 아동·청소년기에 노숙을 경험한 적이 있는 13세에서 23세 이하 청소년층으로 하여 이들의 회고를

토대로 노숙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갇생·극복 등 변화과정, 일과 자립, 대인관계, 정책 니즈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표 2] 심층 인터뷰(IDI) 조사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조사 대상자 섭외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정부 임시청소년쉼터시설 종사자 추천</li> <li>임시청소년쉼터를 거점으로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 모래 추천</li> <li>청주소년원 교육·멘토링 분과 수석위원 추천</li> </ul>
조사대상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숙(경험)청소년 5명(반복 인터뷰)</li> <li>노숙(경험)청소년 5명(1회 인터뷰)</li> </ul>
조사대상자 특성·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22세 이하 청소년</li> <li>이동·청소년기에 안정적인 거처가 없이 거리에서 하루 이상을 보내거나 노숙인 지원시설(일시보호시설), PC방, 만화방, 찜질방 등에서 자거나, 친구나 친척 집에 얹혀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22세 이하 청소년</li> <li>고시원, 모텔, 쪽방 등 기타 일정한 거처가 없이 불안정한 상태의 거주형태를 현재 경험하고 있거나 과거 경험한 22세 이하 청소년</li> </ul>
인터뷰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형화되지 않은 1:1 개별 심층면담</li> <li>시설 종사자 면담 병행(조사대상자가 해당시설 종사자 추천일 경우)</li> </ul>
인터뷰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시간 내외/1회</li> </ul>
인터뷰 자료 기록·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록 및 (가급적) 녹음 후 전사</li> </ul>
조사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과제 참여 연구진 및 조사원</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주현황(주거경험, 현 상태, 주거 관련 욕구), 경제적 자립(근로여건, 근로현황, 근로 관련 니즈), 관계·생활태도(개인적, 인간관계,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태도 및 일상생활), 지원정책(가장 필요했던 지원, 현재 가장 필요한 지원, 가장 도움이 된 지원과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지원, 지원에 대한 정보 습득 방법) 등</li> </ul>

본 연구에서 1회 이상의 인터뷰 조사과정에 참여한 5명의 참여자의 연령, 학력, 직업 및 가족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3] (반복 인터뷰)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름(가명)*	연령	성별	학력	직무/역할
이○○	21세	남	고졸	홈플러스 일용직
이□□	17세	여	자퇴(고)	노래방 도우미
백△△	22세	여	고졸 (검정고시)	조기퇴소 예정 전문대 합격(헤어)
김◇◇	18세	여	중퇴(중)	수감 중(재범)
이◎◎	17세	여	중퇴(중)	수감 중(초범)

자료 수집은 내러티브 면담(심층 인터뷰, In-depth Interview)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조사 대상자들이 그들의 삶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그 이야기를 청취하는 사람(연구자) 간의 공유된 경험을 말한다. 이 방법은 연구자가 연구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고 내부자의 주관적인 본질이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up>39)</sup>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9년 9월 중순부터 시작하였다. 개별적인 내러티브 면담은 1인당 3~4회(1회당 60분~120분)로 총 12회를 실시하였다.

**[표 4] FGI 연구와 내러티브 연구 비교**

	장점	단점
FG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의견을 한자리에서 모을 수 있음</li> <li>• 하나의 의견으로 합의를 거치는 것보다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다양성이 확보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 전문가의 다각적 참여가 필요</li> <li>• 연구 관련 참여자를 한 시간, 한 장소에 모으기 어려움</li> </ul>
내러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연구자와 응답자 모두에게 유익함</li> <li>• 취약하고 소외된 참여자들에 대한 진실된 이야기를 찾아내고 이를 사회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도움이 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석에 대한 애매모호함과 명료함의 부족</li> <li>• 연구과정에서 애매함의 과정을 견디는 힘이 있어야 함</li> <li>•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려는 상당한 노력의 필요</li> <li>• 연구자의 이득이 참여자보다 많음</li> </ul>

내러티브 면담의 첫 번째 시간은 주로 ‘위기청소년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본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만 조사 대상자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억나는 부분부터 이야기해도 좋다고 설명하였고, 연구원들은 최대한 경청을 하면서 조사 대상자에 대한 꼬리 질문을 통해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두 번째 시간은 조사 대상자가 지난 시간에 공유하였던 내용 가운데 빠뜨렸던 사항이 있거나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가출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 속에서 자신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소년원 밖의 또래 위기(비행)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 및 느낌은 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소년원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39) 김시아, 「비행청소년의 탈비행 너머: 돕는 자로서의 삶」, 2019, vol.50, no.1, pp. 71-100

가치나 생각은 무엇인지, 수감 후, 예전에 만났던 혹은 만날 수 있는 위기(비행)청소년과 어떤 상호작용(교류)을 하게 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연구자는 매회 조사 대상자들이 개인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및 촉진하였고, 조사 대상자가 제공해 준 사진과 서신기록 등 주요 내용을 관찰하였으며, 이들의 표정과 말투 등 비언어적 소통에도 주목하였다. 이를테면, 애써 자신감이 넘치지만 부산한 몸짓으로 주위를 산만하게 하거나, 밝은 표정이지만 근심 어린 미소로 전체적인 면담상황을 어둡게 하는 조사 대상자들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면담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한 개인의 생애를 '삶의 영역'과 '터닝포인트'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터닝포인트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연구자는 면담 기록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조사 대상자의 삶이 형성되어가는 과정, 공통적인 유형과 주제를 발견하는 작업을 거쳤고, 조사 대상자들의 내러티브 속에서 터닝포인트를 중심으로 자신의 삶이 변화해가는 과정을 발견하고자 주력하였다.

[표 5] 내러티브 연구방법론에 맞춘 질문

구분	내용	질문
도입 질문	인적사항	자기소개(이름, 가출 기간, 특이 사항 등) 힘든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주요 질문 (시간, 공간, 관계에 초점을 두고 질문하기)	가출하게 된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파악	가출의 결정적 계기 어떤 생각으로 가출하게 되었나요? 가출하기 전에 가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나요? 얼마나 자주 했나요? 언제 결정적으로 가출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어떻게 가출할 용기가 생겼죠?
		가출을 가능하게 한 상황 가출한 친구들 모임이 있나요?(페이스북, 인스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얻을 수 있는 점은?  가출생활에서의 어려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피해를 입었던 점은? 피해를 입은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마무리 질문	조력할 점	가출을 끝낼 수 있는 상황 지금 다시 가출 전으로 간다면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일이 생기면 다시 돌아가고 싶을까요? 어떤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나요?  미래계획 앞으로 진로 계획은 없나요? 가출할 때 뭘 먹고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나요? 부모님이 나를 찾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어떤가요? 나를 찾지 않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때요? 내가 돌아가고 싶은 우리 집을 상상해보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인터뷰가 끝나고 마음 나누기

## (일회성 인터뷰 조사 대상자) 청소년 인터뷰 내용

### 질문1) 매일 하루하루의 생활이 어떠했니?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을 어떻게 해결했니?)

“우리는 다 비슷해요. 같이 지낸 지 한 두어 달 정도 되었나? 집에서 나온 지 좀 되어서 의정부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친구가 정말 많아요. 가출한 동생들도 많고 그래서 돈 떨어지면 동생들 시켜서 돈 가지고 오라고도 하고 친구들이 관찮은 알바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그거로 PC방 가기도 하고 밥도 사먹고, 담배도 사고, 술도 사먹고 등등 그러죠 뭐…”(청소년 A)

“생활은 매일 똑같은데 잠자고 일어나서 돌아다니다가 어두워지면 잠잘 곳 찾고… 재건축 들어가는 부지의 빈 아파트에서 자기도 하고, 주로 PC방에서 밤새기도 하고, 찜질방이나 가출한 선배 통해서 모텔에 3~4명이 함께 가기도 해요.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돈 필요하면 아는 사람들한테 얻기도 하고 가끔 빵땅 뜯기도 하고, 손쉬운 알바로 지하철역 앞에서 헬스·피트니스 광고 짜라시 부려서 벌기도 하고…”(청소년 B)

“저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매일매일 자는 곳이 좀 달라요. 아는 친구 집이나 친구에게 돈 빌려서 모텔이나 PC방에서 자고, 다른 친구들이 관찮은 일당 알바 알려줘서 돈이 좀 생기면 모텔에 가기도 해요. 자고 일어나서는 제 또래들과 여기저기 이 돌아다녀요. 그냥 계속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배고프면 주로 편의점 가서 라면이나 삼각김밥 같은 거 사먹고 그래요. 정말 정말 돈 없어서… 이틀 정도 굶은 적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쉼터 같은 곳은 가기 싫어요. 규율도 있고… 먼저 들어온 아이들이 텃새도 있고…”(청소년 C)

### 질문2) 근데… 왜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지내나…?

“원래 집이 안양이었는데 제가 집 나온 사이에 의정부로 이사를 갔더라고요. 기분 더럽게 나뉘었는데… 새로 이사 간 동네로 오니까 맘 통하는 또래도 없고 학교생활도 따분하고 그래서 학교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막상 가출하니까 돈 나갈 곳은 많은데 지갑은 이미 거덜났고, 졸린데 딱히 어디서 자야 할지 모르겠고… 이런 건 불편한데 그래도 저와 비슷한 친구들도 알게 되어 재미있고 자유롭고 그래요. 아직 1년은 안 됐고, 6개월 정도 된 거 같아요…”(청소년 A)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안 들어가죠… 짜증 나서 나왔고 지금도 상황이 바뀐 거 같지는 않아요. 우리 엄마는 내가 아주 어릴 때 아빠와 이혼해서 다른 남자한테 시집갔다고 들었어요… 아빠는 만날 술만 처먹고 오고 술주정하고 특하면 물건들을 던지고 소리치고 저를 때리려고 하고… 지긋지긋해요. 아직은 힘이 없어서 아빠를 제압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제가 나왔어요… 실은 잠깐 집 밖에 나와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나와서 지금 친구들을 만났는데 너무 좋아요.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이라서 더 친밀하고 소속감도 들고 어려우면 저 챙겨주고 그래요. 근데 학교도 안 가니까 학교도 잘렸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1년 정도 이렇게 생활하니까 우리만의 커뮤니티도 알게 되고 이 커뮤니티에서 돈 버는 방법도 알려주고 이제는 이게 편해요.”(청소년 B)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서는 제가 집에 오는 거 싫어하는 거 같아요. 잠깐 들어가면 할아버지가 술 취해서 제게 욕이나 하고, 특하면 할머니 마구 때리고 엄마는 어렸을 적에 도망가셨고 아빠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오시나 그래요… 너무 미칠 거 같아서 저는 몰래 담배를 배웠는데… 술 취한 할아버지에게 후드러지게 맞으신 할머니는 제게 와서 담배 달라고 해서 할머니와 같이 피운 담배… 그때… 참으로 모질게 제 마음 아프고 서로 부둥켜안고 울고… 왜 나는 이런 인생일까 하도 답답해서 집을 뛰쳐나왔는데… 그런 마음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아서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저는 쉼터에서 1년 정도 산 거 같고 그 이후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한 2년 정도 지낸 거 같아요.”(청소년 C)

**질문3) 혹시... 가출하면서 사는 삶을 그만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언제 드니?**

“돈이 없을 때요. 흡연하고 싶는데 돈은 바닥났고... 길바닥에 버려진 담배꽂이가 있길래 그거 피우는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하는 자괴감이 들어요.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PC방으로 일단 들어갔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PC방 사장이 청소하고 있는 틈을 타서 몰래 도망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보호관찰 받고 있어서 혹시 잡으러 오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고... 뭐... 이러면 이 생활 접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청소년 A)

“추울 때요. 이제 기온이 아침저녁은 제법 쌀쌀하게 내려가잖아요. 겨울만 어떻게든 나고 싶는데 추우면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집에 가보기도 하고 근데 막상 집에 들어가면 또 새엄마에게서 짜증나는 일만 생기고...그래서...”(청소년 B)

“의식주가 해결 안 되는 게 제일 힘든데...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비행을 저지르다가 거둬되어 범죄로 소년원에 들어간 친구를 보았을 때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가끔 그 친구와 편지를 교환하는데 현실과 단절되어 통제된 공간에서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하는 삶에 대해 그 친구가 무척 답답해하는 심정을 보니깐... 이 생활 접어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질문4) 그럼... 어떤 도움을 주면 좋겠나?**

“우리 가족 문제 어떻게 해결 안 될까요? 당장 금전적 지원을 받더라도 우리 가정은 그대로면 제 이런 생활은 계속 반복되는 건 아닐까 생각 들어요?”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세요~ 알바는 3~4개월 하면 잘려서 길게 하지도 못하고, 괜찮은 일당 주는 알바는 기회가 많지도 않고, 어떤 친구들은 성매매 같은 거 해서 제법 돈을 벌기도 하는데 그것도 얼굴과 몸이 관찮아야 하는데...저는 그러지도 못하고...”

“쉼터에서 1년 정도 살았는데... 먹는 거 그리고 자는 거 외에는 제게 딱히 도움되는 게 없었어요... 오히려 규칙만 강요하고... 정말 제대로 갖추어진 쉼터가 제공되면 좋겠어요. 먹고 자는 거뿐만 아니라 저의 진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쉼터요.”

“우리 같은 청소년을 그릇된 시각으로 비행이다, 위기 청소년이다 그런 딱딱한 시각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오죽하면 집 밖으로 탈출했을까’, ‘오죽하면 빙땅을 뜯었을까’ 등 우리를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요. 우리한테 무언가 해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딱딱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싫어요.”

내러티브 인터뷰 내용 발췌 #1

저녁 8시 45분경에, 가출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의정부 청소년 쉼터에서 재식을 세 번째로 만났다. 보통 청소년과 전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그는 비행 청소년이다. 일시쉼터를 거의 한 달에 3~4회씩 이용한다. 청소년 쉼터에서 자리를 잡은 뒤 재식에게 생애 첫 가출은 어떠했는지 물어보았다. 의외로 쉽게 답해줬다. “처음 가출을 하게 된 건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통금시간을 두고 부모님과 다투다 좀 일이 커져 버렸죠. 전 자유롭게 놀고 싶었거든요. 그 길로 수중에 있는 돈 몇만 원을 들고 친구 집으로 갔어요. 거기서 보름간 먹고 자고 했죠.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 재식은 고1 때 두 번째 가출을 한다. “엄마와의 불화도 있었고, 친구 문제도 있었어요. 집에 들어가면 늘 혼자 있는데 오히려 답답하죠”라며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두 번째 가출 후, 좀 더 대담해진 재식은 알게 된 가출한 친구 2명과 같이 다녔다. 패스트푸드점 알바, 노래방 도우미, 편의점 알바 등을 통해 돈을 모아 모텔에 방을 잡고 함께 생활했다. “그렇게들 많이 해요. 돈이 없거든요. 혼자 살기에는...” 편의점 알바는 가출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드는 가출청소년들의 일터이자 쉼터라고 한다.

두 번째 가출에서 재식은 첫 번째 가출에서 맛볼 수 없는 쾌감을 느꼈다고 했다. 더 대담해져서 신분증을 위조해 이태원 클럽에 가서 친구들과 밤새 즐기기도 하였다. “자유로웠어요. 힘들기는 했지만, 통금이 있을 때는 늦게까지 놀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엄마와 심하게 다투거든요. 밖에 나오니까 그게 좋았어요.” 하지만 갖고 나온 돈이 금세 떨어지자 이들 셋은 각자 친구들에게 빌리기도 했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오피마켓 등에 물품을 허위로 올려놓고 물건을 팔아 돈을 벌기도 했다. 그게 범죄인 줄 알면서도 일단 의식주 해결이 너무나 급했기에 안중에 없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가출했을 때 돈이 가장 힘든 점이라고 털어놓았다. 갖고 나온 돈은 길어봤자 보름이면 바닥이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살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 그에게 “왜 청소년 보호시설에는 안 들어갔니?”라고 묻자, 그는 “에이... 창피하고 지켜야 하는 규율도 많고 답답하잖아요”라고 답했다. 답답한 집구석에서 탈출하였는데, 이래라저래라 하면서 답답하게 하는 시설은 싫다는 것이다. “그런 시설에 들어갈 바에야 그냥 집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편하죠”라고 말한다.

이제 재식은 상습적으로 가출한다. “돈이 있으면 다시 가출하고 싶어져요.” 그렇지만 그에게 가출은 곧 고생인 듯했다. “나올 때마다 잘 곳을 구하느라 고생해요. 아침에 짐질방 입장료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서 들어가기도 하고, 밤새 거리를 걷기도 하고, 24시간 패스트푸드점에서 그냥 죽치고 있기도 했어요. 특히 겨울에는 무조건 안에 있어야 하죠. 추운 건 정말 고통이에요... 먹는 것도 친구 집에서 먹거나 그래요”라고 겨울철 가출생활에서의 고생을 털어놓았다. 그런데 이러한 재식도 꿈이 있는 듯했다. 재식은 내게 골목식당의 백종원 같은 요리사가 된 자신의 모습을 그린 노트를 자랑스레 보여 주었다.

소년원 출신의 지윤을 만났다. 지윤 역시 가출 경험이 있다. 지윤은 흔히 말하는 ‘왕따’였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다. “제 말을 그냥 무시하고 안 꺼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제 물건을 빼앗아 가거나 제게 오히려 시비를 걸더라고요. 나중에는 많이 맞기도 했어요. 돈도 뺏기고.” 그런 지윤에게는 가정의 보살핌이 필요한 듯했다. 그러나 (지윤이 초등 3학년 때 이혼 후) 혼자서 집안을 꾸려나가느라 바쁜 어머니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았다. 지윤의 어머니는 단순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느라 아침 일찍 집을 나가 밤이 되어서야 들어와 지윤과 대화를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약물이죠. 하루하루 학교에 가는 게 정말 싫었어요. 도움이 필요했지만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무언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은 지윤의 바람에 불과했다.

중학교 시절 같이 다녔던 동급생들이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지윤에 대한 소문이 암암리에 퍼져 또다시 따돌림을 받게 됐다. “참아보려고 했는데, 어느 날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과 학교에서 모두 무시 받는 현실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도 그만두고 집에서도 나가기 위해 네이버에서 ‘가출’이라는 단어로 검색해 가출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돈은 어떻게 벌 수 있을지, 나 같은 친구들이 주로 방문하는 인터넷 카페는 무엇인지 등 관련 정보들을 수집해나갔다. 심지어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을 서로 매칭해주는 인터넷 사이트도 있었다. 지윤은 그곳에서 동갑인 여학생 혜림을 동행으로 구했다. 지윤은 돈이 없을 때는 가출친구 혜림이와 함께 지나가는 어린 학생들을 불러 세워 빙땅을 뜯기도 하였다. 가출 전에는 피해자였던 지윤이 가출 후에는 가해자가 된 셈이었다.

가출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지윤은 가출 친구들과 함께 대담하게 돈을 뺏기 시작했고,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쳐서 오픈마켓에 이를 되팔기도 하였다. 그리고 급기야는 인터넷 공간에서 알선받아 (아저씨와) 만남을 통해 용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소년원에 들어간 건 큰 변화였어요”라고 지윤은 말한다. 이전과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제재받는 생활을 하게 됐고, 그것은 지윤에게 꽤나 스트레스로 작용했는데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고 한다.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통해 헤어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되어, 올해에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합격한 지윤은 전문대학 합격증을 거머쥐었다. 그리고 청소년심리전문 상담가와 정기적인 카운슬링을 통해 왕따로 인한 트라우마와 우울증 등을 치유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기게 됐다.

그런 그녀에게 앞으로 어떻게 지낼 것인지 넉넉히 물어봤다. “솔직히 입학하게 될 학교와 집으로 돌아가기가 두려워요. 다시 또 다른 따돌림과 무관심의 대상이 될까 두렵기도 해요. 하지만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지수의 부모님은 지수가 어릴 적에 이혼했고, 아버지가 지수를 키우게 됐다. “10살 때 아빠가 재혼하게 됐어요. 다시 새롭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데 제가 부담됐는지 저는 친할머니덕으로 보내졌죠. 그때부터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라며 보통의 또래친구들은 경험하기 어려운 가슴 아픈 사연을 들려 주었다. 어머니한테 가지 그랬냐고 묻자, “아, 어머니는 연락이 이미 두절된 상태였어요”라고 대답했다.

아버지에 이끌려 맡겨진 할머니 집에서의 생활도 기대만큼 평탄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심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고, 친할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 폭행을 일삼았다. 한창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지수를 안정적으로 키워줄 사람이 딱히 없는 셈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혼자 집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이 일과였다. 마땅한 친구조차 없었다. 할아버지는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오면 항상 할머니와 그녀를 때리곤 했다. “무서웠어요. 정말로. 밖에서 할아버지의 술 취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면 이불에 들어가 숨기도 했어요. 소용없었죠. 그때 할머니도 저도 안 맞았던 곳이 없어요. 맞고 나서 오래 울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간 또 맞았거든요. 거의 하루걸러 할아버지에게 맞으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사실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부터 막막했어요.”

무관심 속에 방치된 채 구타로 삶이 얼룩진 그녀는 17살이 되던 해에 집을 나왔다. 할아버지의 구타 수위가 점점 높아졌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심지어 지수를 성희롱하기도 했다. 그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수가 택할 수 있었던 길은 탈출뿐이었다. “가출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었죠”라며 말한다. 집을 나와서는 수중에 있던 약간의 돈으로 찻집방에서 지냈다.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애당초 없었기에 가출청소년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알바 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한참 알아본 끝에서야 겨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었다. 한밤중 술에 취한 아저씨들이 치근거릴 때마다 할아버지에게서 당한 트라우마로 고통스러웠지만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다.

지수는 가출한 선배를 통해 소개받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였다. 그런데 기다리던 월급날이 됐는데도 주인아저씨는 돈을 주지 않았다. “당시에 제 처지가 그곳 아니면 딱히 돈을 벌 곳이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뭐라고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두 달이 넘었는데도 ‘알바비’를 줄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달라고 요구했죠.” 그러나 주인아저씨는 오히려 지수에게 가출청소년인 것을 빌미 삼았다고 한다. 지수는 결국 돈을 받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지수에게 돈이 아깝지 않았냐고 묻자, “어쩔 수 없었어요. 제게 이 세상은 너무 가혹한 거 같아요. 시간이 지난 이제야 저는 좀 적응을 한 편인 거 같다”라며 말한다.

## 4. 연구결과

심층 인터뷰 결과는 공동체(가정, 학교, 또래집단) 사회관계망, 정책지원 등 인터뷰 질의 항목에 따른 조사 대상자의 답변을 토대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1) 가출이 아니라 탈출이다

조사 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가족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다. 이는 가출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신체 및 정서적으로 일상적이고도 심각한 수준의 학대를 경험하였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는 가정이어야 한다. 부모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정서적인 안정을 느끼면서 쉴 수 있는 곳, 인성 대부분이 형성되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현실 속의 가정은 상처와 아픔을 주고, 가장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재미없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들에게 학교 역시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고통스러운 장소였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일탈의 시작은 바로 가출이다. 이들이 가출하는 이유는 반항심이 아니다. 부모의 폭력, 가족 불화, 양육 능력 부재 등 가정의 붕괴 때문에 말 그대로 '탈출'한 것이다.<sup>40)</sup> 이들은 거리에서 만난 또래집단 친구들이 더 따뜻하고 편안하다고 말하고 있다.

### (2) 가출 직후 달라지는 삶

가출 후 이들은 마땅한 거처가 없자 거리를 계속 걸어 다니며 밤을 보내거나 친구 집에서 잠자는 생활을 시작한다. 친구 집에서 눈치가 보여 더 이상 잘 수 없으면 상가계단, 빈집, 창고 등을 전전하면서 잠을 편하게, 깊이 잘 수 없고 누군가 오면 잠자리를 비켜주거나 형광등 아래에서 억지로 잠을 청하기도 하였다. 모처럼 알바를 해서 돈이 생기면 PC방, 짬질방, 고시원에서 자기도 하고 다시 돈이 바닥나면 거리생활을 반복하였다. 그러다가 거리생활이 지속되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또래 사람들을 알게 되면서 알바를 구해 주거비를 같이 부담하면서 모텔을 잡고 한두 달 정도 지낸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면 또 여기저기를 전전하였다.

40) 네이버 블로그, 명성진, "세상을 품은 아이들", <https://blog.naver.com/ghkswsl/220724334686>

흥미로운 점은 조사 대상자들은 가출하기 전에 지낼 곳을 정해놓고 가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거리생활을 시작하는 과정에도 일시쉼터와 같은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을 알고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청소년쉼터로 연계하는 경우에서야 이들은 청소년쉼터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이 접하게 되는 청소년 쉼터는 첫인상부터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청소년 쉼터에서는 입소하게 되는 이들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우선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다고 한다. 이들은 자신을 확대하거나 착취한 부모에게 연락하여 청소년의 소재지를 알려주는 것에 불쾌감을 넘어 당혹스럽다고 한다. 그래서 시설 상담자에게 반감을 가진다. 심지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명백한 경우인데도 경찰이나 청소년보호전문기관에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를 공식 요청하지 않은 것도 확인되었다.

청소년 쉼터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이 너무 없어 무료했다거나 또는 쉬고 싶는데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반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에 순응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이들에게 청소년보호시설(쉼터)는 독립 공간 없이 숙식을 제공하는 반대급부로 까다로운 규정준수 요구와 일정 입소기간을 마치면 준비 없이 시설 밖으로 퇴소해야 하는 집단수용소와 같은 장소였다. 반대로 청소년보호시설로 들어가고 싶은데도 해당 시설의 운영규정을 어기거나, 범죄 경력으로 인해 또는 시설의 정원 초과로 인해 입소하지 못한 경우도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보호시설(쉼터)이 운영예산 확충과 더불어 더 유연한 운영과 가출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이 개발·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3) 나쁜 아이들이 아니라 아픈 아이들이다

가출청소년은 노숙과정에서 대다수가 범죄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성매매로 인한 피해자 신세가 되기도 하였고 남자청소년은 당장 수중에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에 자필서명을 하였다가 명의도용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였다. 또 다른 가출청소년은 돈 없이 찜질방에서 자다가 업주 신고로 경찰에 의해 끌려 나오는 수준에서 점차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학생들의 돈을 뺏는 적극적인 범죄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거리에서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들은 외부의 도움 없이 범죄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가출청소년(들)을 나쁜 아이로 바라본다면, 비행 행동을 교정하려 하거나 다른 또래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 이 비행 청소년(들)을 아프고 상처받은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데 (정책 및 서비스) 포커스를 두어야 할 것이다. 아픔, 고통, 상처 속에서 몸부림 치는 표현이 비행(범죄)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이해하여 이들을 품어야 할 것이다.

사실, 본 연구진들이 인터뷰한 가출청소년들 대부분이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 학교 폭력의 가해자인 청소년들 대부분이 알고 보니 가정 폭력 피해자들이었다. 이들은 일차적으로 안전하고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어야 할 가정에서 관계가 끊어져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 또 많은 가출청소년이 학교 친구들과 사이에서조차 따돌림(왕따)을 경험한 상처가 있다. 이들은 따돌림(왕따)의 두려움과 고통을 알기에 자신을 지켜줄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 몸부림친다. 그래서 자신을 지켜 줄 수 있는 집단으로 가출 청소년 집단을 선택한다. 그 결과 가해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들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상처받고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은 이렇게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이런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본다면 가출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가출청소년들은 '나쁜 아이들'로서 사회악이기에 격리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들은 '아픈 아이들'이며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에 목말라 있다는 것이다.

#### (4) 돌아갈 곳이 없는 이들에게 진정한 자립을 위한 삶

가출이 장기화된 청소년들은 진정한 자립에 대한 바람은 강했지만 구체적인 정보 습득과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막연하게 돈을 벌어서 원룸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만 할 뿐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자신의 커리어 역량을 키워야 할지를 거의 모르고 있었다. 이들에게 단순일용직(일자리) 제공은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보통의 가정에서 자라 고등교육을 마친 성인이 되어도 진정한 자립은 쉽지 않은 현실이다. 따라서 가출(노숙)청소년에게는 이러한 자립 과정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중요하며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더불어 명의도용에 따른 채무 피해, 임금 체불, 통신서비스 부재, 미성년자의 근로활동 제약<sup>41)</sup> 등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법적 구제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41) 미성년자의 경우 근로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근로를 위해서는 취업동의서, 보건증 등 보호자의 동의나 별도의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청소년쉼터는「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어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제약이 있다.

## (5) 진정한 관계 맺기를 통해 인간은 성장한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인간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관계는 상호작용이다. 형성된 관계를 성장·발전시키는 것은 사랑이다. 본 연구진들이 인터뷰한 가출청소년들의 가출 전 가족 및 학교생활 등에서의 관계는 대부분 심각하게 손상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관계의 손상은 외로움, 소외감으로 이어지고 가출 이후의 취약하고 불안정한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가해자로서 또는 피해자로서 경험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청소년지원·보호시설(쉼터) 등을 통해 관계맺기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이들 기관은 주로 가출청소년들을 판단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가뜩이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든데 누군가 와서 내 마음도 잘 모르면서 이래라저래라 하면 오히려 기분이 상하기 마련이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아픈데 알아주지 못하는 그 억울함이 진정한 관계형성에 최대 장애물이 된다. 가출청소년들에게는 전심을 다해 들어주고 공감으로 반응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어야 한다. ‘너는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너 많이 힘들었구나’, ‘넌 참 괜찮은 친구네’, ‘넌 목소리가 정감이 있네’ 등으로 이들의 존재를 인정해주어야 한다. 이럴 때 이들은 진정한 관계 맺기를 통해 성장·발전할 수 있다. 특히나, 가출 후 취약한 거리생활 중에서도 미래에 대해 소박한 꿈을 꾸는 가출청소년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끝까지 함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이들이 처한 현재의 역경을 뛰어넘는 에너지가 된다.

## 5. (국내·외) 가출청소년 관련 사례조사

국내·외 가출청소년 지원정책과 사례를 검토하여 정책제안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가출(노숙)청소년, 노숙인 지원과 관련하여 선진적인 제도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더불어 국내·외 가출청소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가출(노숙)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정책에 있어 가출 및 노숙의 원인을 고려하여 수혜 대상을 넓게 설정하여 특정 그룹이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와 지원 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즉, 선진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취약하고 불안정한 거주상태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뿐 아니라 청년층을 포괄하여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다.

둘째, 청소년의 가출에 있어 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즉 미국의 경우 양육자에게 알리지 않고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 본인의 의사에 따른 가출이라 하더라도 보호자는 이들을 보호 및 지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청소년의 가출을 비행이 아닌 탈가정 과정으로 접근하여 이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중재·개입과정에서도 가출청소년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및 서비스 전달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기 때문에 쉼터와 같은 청소년보호시설 이용 시, 부모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여 부모에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단, 청소년의 가출에 있어 방치 및 학대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어, 가출청소년이 가정을 나오게 된 배경을 면밀히 조사하고 안전에 대한 제3자 확인 작업 없이 가정 복귀는 이루어질 수 없다. 만일 청소년의 신변안전보호에 중대한 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부모의 친권에 대한 제한까지 이루어진다.

셋째, 가출청소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관련 정부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학교, 교육청, 교육부가 이들에 대해 대안적인 거주 서비스 및 자립을 포함한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의 학사운영보다 가출한 학생의 관점에서 학적, 수업운영이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넷째, 가출청소년 대상 사업 및 프로그램에서 수혜자인 가출청소년들의 욕구(needs)분석을 토대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제공되고 있다. 즉, 프로그램 수혜자인 가출, 홈리스 청소년들이 처한 취약성에 초점을 맞춰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욕구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사업과 프로그램이 개발되며 지속적으로 수정·보완이 이루어진다. 이를테면, 보호시설(쉼터)의 경우 입소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거주기한이 초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주거에 대한 대안 없이 퇴소시킬 수 없다. 다시 말해, 가정이 '안전하고 적절한 출구(safe and appropriate exits)'인지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면밀한 확인 작업을 통해 가정으로 복귀가 이루어진다.

다섯 번째, 가출청소년은 취약계층에 대한 미흡한 주거지원, 학교부적응과 방임·학대·폭행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에 의한 조기 개입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학교 및 청소년 보호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단계별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고 있다.

## (1) 벤치마킹 프로그램 사례

### (1) 재능을 찾아 몰입하기: MG 밴드

가솔한 청소년들이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비전을 보여 주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향한 의욕을 심어줘야 한다.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문제에 함께 매몰되지 말고 아이의 문제 너머에 있는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진짜 욕구를 찾아주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을 어떤 것에 몰입시킬까 고민하다 나온 대안은 바로 음악이었다. 대부분의 아이는 음악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악기를 구입하고, 아이들에게 음악을 제대로 가르치고, 음악에 더 깊게 몰입시키기 위해 실용음악 전문기들을 어렵게 섭외했다. 그렇게 해서 2010년 아이들 일곱 명으로 MG 밴드(Miracle Generation, 기적의 세대)를 결성하였다.

처음엔 음악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연습을 하려고 하지 않던 아이들은 또래친구가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자 하나둘 함께하게 됐다.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대부분 끈끈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아이가 변화하면 행복 바이러스처럼 주변으로 퍼져간다.

2010년 말 첫 공연에서 좌석이 1백여 개인 예배당에 250여 명이 몰려왔고, 공연은 대성공이었다. 그 후 아이들은 활발한 밴드 활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MG 밴드는 2012년부터 부천시 청소년 수련관과 함께 지역문화축제에 참여하면서 지역 활동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노인과 장애인 보호 시설에 찾아가 공연으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제는 MG 밴드의 뒤를 잇는 새로운 후배 밴드들이 등장했다. 후배들은 ‘크런치 밴드’, ‘검정고시 밴드’ 등을 만들어 자기들만의 색깔을 가지고 밴드 활동과 자아 찾기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

음악에 제대로 중독된 아이들은 음악적 재능을 살려 관련 대학에도 진학하고, 사회에서도 자기의 역할을 찾아냈다. 이제 아이들은 가솔 예방 포럼에 ‘라이프 콘서트’에도 참여해 청소년들에게 강연도 한다. 보컬 한빈은 강연에서 “나는 관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 낼 수 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눈다. 인생의 추운 날들은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기 위한 여정일 뿐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한빈은 “언젠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할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자신들과 똑같은 상처와 아픔을 지녔던 아이들이 무대를 빛내며 열정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위기의 아이들’도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제 이 일곱 명은 다들 성인이 되어 공연 및 예술 분야에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세상의 바이러스라고 단정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아이들은 세상의 행복 바이러스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이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기다린다는 사실이 좋아요(보컬 한빈)”*

## (2)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몽골 자전거 횡단 2,300km

상처와 아픔을 지닌 아이들이 몽골로 14박 15일 일정으로 여행을 떠나 철저하게 외부 세상과 단절된 채 시간을 보낸다. 바닷한 계획과 일정 중심의 여행이 아니라, 그날그날 함께 있음에 의미를 두며 '동행'하는 여행이다.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 문명과 단절된 채 자연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2천 3백 킬로미터를 4박 5일 정도는 말로 이동해야 하고, 전화도 안 되고 음식 조달도 쉽지 않은 곳에서 나를 나로서 바라보며 아이들은 살아나기 시작한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만들었던 이 땅의 모든 것과 단절된 땅에 들어설 때 아이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므로 아이들은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몽골에 도착하면 아이들은 "이런 데서 어떻게 자요"라고 한다. 이들 걸려 러시아 국경 쪽 호수에 가는데, 도중에 자전거는 고장 나고 진창에 빠져 모두가 흙탕물을 뒤집어쓰며 빼내기도 했다. 음식은 떨어지고, 식수도 부족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달라진다. 부족한 물을 나눠 마시고 어려운 일은 서로 돕는다.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새로워지고, 한 번도 본 적 없고 경험해 본 적 없는 곳에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는다.

한여름에 떠난 여행이었지만 밤이 되면 0도 가까이 떨어지는 추위 속에 떨어야 했고, 매일 감던 머리를 1주일씩 못 감고 양치도 며칠에 한 번 하는 경험 속에서 이상하게도 아이들은 조금씩 자라났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를 외치며, 말도 안 되는 열악한 상황을 놀이처럼 즐기기 시작했다. 드넓은 초원과 아생의 환경이 아이들의 마음속의 때를 벗겨 내고 순수한 그 또래의 아이들도 돌려놓았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아이들과의 여행은 공감하고, 소통하고, 사랑하기 위한 여행이다. 아이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초원을 달리면서 극단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자신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 하지만 그때그때 닥친 문제를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갈 때 의외의 길이 열린다. 해결 방식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모두 듣는 것이다. 그들의 불안과 아픔을 충분히 들어주고 공유하면, 아이들은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는다. 나는 아이들에게 지시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지를 묻는다.

우리는 이 여행을 통해, 일을 잘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 즉 관계가 먼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함께하는 아이들과도 그렇게 관계와 소통 중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아이에 대한 욕심과 불안을 내려놓고 진짜 아이의 모습을 발견하여 그 가치를 드러내도록 격려할 수 있다.

## (3) 보통 사람들의 글로벌프로젝트: 보글 커뮤니티

'보통 사람들의 글로벌 프로젝트'는 2015년에 필리핀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이다. 처음에는 필리핀 현지로 유학을 온 문제아 청소년들의 영어를 돕기 시작하면서 시작한 모임이다.(필리핀에 유학을 온 문제아 청소년들 대부분은 영어 구사력이 극히 떨어진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들의 영어실력만 향상시킬 목적이었지만 실제로 영어를 잘 구사하게 되면서 많은 것에 대한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 공동체의 목적은 단순했다. 상업적인 거래가 전혀 없이 무료로 이승범 교수가 이 보글 커뮤니티에서 문제아 청소년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현재는 이 활동을 통해 영어구사가 능통해진 학생들이 다시 한국에서 필리핀에 갓 들어온 문제아 청소년 후배들을 위해 교육 봉사를 하고 있다.

이 공동체 내에서는 문제아였던 자신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러한 건강한 공동체와 문화 속에서 이들은 문제해결자로 사는 삶이자 남을 위한 삶, 조력자의 삶으로 전향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때 문제아였던 이들은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넓은 시야에서 자신을 객관화하면서 꿈과 비전을 세울 수 있었고, 함께 더불어 성장한다는 '같은 가치'를 깨달았다. 그리고 그 가치의 실현을 위해 한때 비행으로 점철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후배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후배 멘티들은 선배 멘토들과 함께 공동체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그래서 함께 꿈을 이루는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실험들은 한때 방향의 눈에 갇혔던 이들이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게 하였다.

## 6. 결론

본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연구진들은 가출청소년의 삶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가출청소년과 노숙(홀리스)청소년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대상이 아니다. 즉, 가출과 탈출을 구별하여 서로 다른 처방을 제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이 처한 ‘가정 밖’ 상황에 초점을 두고 거리생활에서 경험하는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아웃리치하고 이들의 처지에 따라 맞춤형 중재 및 개입을 통해 적절한 보호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아야 한다.

둘째, 성인의 경우 초기 노숙자와 만성적 노숙자를 구분하여 서로 다른 개입이 이루어지듯이 가출청소년에 대해서도 최초 가출자와 만성적 가출자에 대해 차별적 개입이 필요하다. 즉, 반복적인 가출청소년이라면 보호자(부모)와 상담을 통한 개입보다는 청소년 개인의 자립역량을 키우는 데 제한된 자원을 집중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반복 가출의 이면에는 부모의 학대·폭행, 빈곤으로 인한 자녀 방치·방임 등으로 형제, 자매의 가출 역시 충분히 발생가능하다는 점에서 근본적 가출 예방을 위해서는 이들의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와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에서는 캠페인성 가출 예방 교육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불가피하게 가출하게 되는 상황에서 가출 관련 서비스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가출청소년의 관점에서 청소년보호시설의 질적 업그레이드가 요구된다. 청소년 쉼터를 이용한 대다수 가출청소년은 쉼터에서 요구하는 성가신 규칙 또는 입소기간 등으로 퇴소하기도 하였고 독립된 공간 부재로 학업수행이나 수면에 불편을 겪고 있다. 시설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역시 수혜자 관점에서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삶을 함께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이다. 일부 가출청소년들에게서 불안정한 궤도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변화 성장해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가출청소년들의 가출에서 탈비행 과정에서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개인의 변화 의지와 멘토 및 코치와 같은 외부관계자의 적극적인 중재·개입이 상호작용하여 점진적으로

변화해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조사 대상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타인의 존재와 이들이 함께하는 안전한 공동체 구축이 매우 중요함을 인지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과거 가출청소년이었던 이들이 돕는 자(멘토)가 되어 현재 가출청소년과 함께 탈비행의 성공적인 굴레에 안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가출청소년의 회복을 위해서는 진정한 가족의 관계를 느낄 수 있는 대안 가정(공동체)을 제공하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들 청소년은 부모와 형제 역할을 하는 멘토와 또래집단의 관심과 격려가 수반될 때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

### (1) 정책 제안

본 연구에서 대상인 가출청소년은 ‘가출’이라는 행위 자체보다는 ‘가정 밖’이라는 상황에 주목해야 함을 전제로,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동의) 없이 24시간 이상 무단으로 집으로 복귀하지 않거나, 상당 기간 일정한 거주지 없이 주거 취약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22세 이하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향후 정책 개발 시 청소년의 가출을 더 이상 우범·비행·일탈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가정에서 탈출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예방적 접근과 가출 이후 노숙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위험 요인의 최소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출청소년 지원 근거를 보완하여 정책대상의 배제 가능성을 해소해야 한다. 노숙인의 권리 및 인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2011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정책대상은 18세 이상 노숙인이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은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8세 이상 청소년 중 가출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정책은 비행청소년 제도도 아닌 기본적인 생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출청소년의 권리, 인권 보호의 맥락에서 관련 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둘째, ‘가출청소년’을 소위 ‘비행소년’으로 규정하여 ‘가출’ 행위 자체를 잠재적 범죄행위(자)로 낙인찍는 「소년법」 제4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들은 나쁜 아이들이 아니라 아픈 아이들이다. 청소년 가출로 초래될 수 있는 악영향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가출하게 된 동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정 밖 청소년 인권 현황’을 모니터링 한 결과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 개정과 정책 개선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인권위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사회적 낙인 우려에 대해 지적하며,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출’이라는 용어를 ‘가정 밖’으로 대체하도록 하였고 ‘가출청소년’을 소위 ‘비행소년’으로 규정하여 ‘가출’ 자체를 잠재적 범죄로 낙인찍는 「소년법」 제4조의 규정 삭제를 권고하였다.<sup>42)</sup>

셋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의무 등)의 개정을 요구한다.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당수가 가정 학대 및 폭행을 경험하고 있는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보호기관(시설, 쉼터) 종사자들은 해당 청소년이 실종 아동임을 알게 된 경우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로 인해 가출 청소년이 보호기관을 기피하고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최소한의 신고유예기간을 인정하거나, 당사자의 의사를 파악하여 동의를 전제로 신고하는 방안 또는 귀가할 가정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sup>43)</sup>

넷째, 부모의 아동학대(가정폭력)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청소년보호시설(쉼터)에서 긴급히 보호되고 있는 청소년이 등교하지 않아 결석으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에 따라 보호시설(쉼터)에서의 거주(체류)기간을 학교 출석으로 인정하여 해당 가출 청소년의 교육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청소년보호시설(쉼터)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지원이 요구된다. 쉼터 입소 청소년 가운데 상당수가 가정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임을 고려할 때 이들 청소년에 대한 대안적인 가족공동체로서 작동하기 위해 쉼터에 대한 제도 보완과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 가출 청소년 관점에서 이들의 니즈 분석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42) 영주일보, “가출청소년이 아닌 가정 밖 청소년”, <http://www.youngju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9984>

43) 네이버 블로그,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http://blog.naver.com/old0212/220920187000>

이와 더불어 가출청소년의 위기 정도를 고려하여 쉼터 운영지침(연령 제한, 입소 기간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가출청소년들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호시설(쉼터)에 근무하는 현장 실무자들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지원이 절실하다.

여섯째, 만성적 가출청소년의 탈비행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부모와 가정에 대한 개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가족은 위기대응과 회복의 중요한 자원이다. 따라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가족 중심으로 문제에 대한 예방 접근이 필요하며, 가족의 위기 대처 자원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접근이다.<sup>44)</sup> 만성적 가출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 및 개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당 청소년의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타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가족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많은 가족원의 경우 개별 심층상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유사한 어려움이나 트라우마를 가진 가족들이 모여 경험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도록 노력하는 자조집단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삶의 사건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지지 집단의 운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sup>45)</sup>

끝으로 이제는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각종 일탈행위·범죄행위 등을 멈추는 것에 대한, 즉 비행청소년들이 탈비행에 이르는 단계뿐 아니라 탈비행에서 이들의 삶이 어떻게 다각적으로 변화해서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44) 최현미, 「위기가족의 갈등해소 및 공동체적 가족문화형성을 위한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개발」, 보건복지부, 2018

45) 나눔의 집 블로그, “치료집단의 유형”, <https://blog.naver.com/welfare1st/221602188443>

## 국내

- 구인회, 김소영, 「노숙 진입의 원인과 과정. 한국사회학」, 2012, 46(4), 264-293
- 김수현, 정원오, 「한국의 노숙원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연구, 1999, 7(1), 69-90
- 김현경, 이옥자, 「청년기에 시작된 거리노숙인의 힘겨운 시기에 대한 체험」, 한국사회복지학, 2011, 63(2), 31-56
- 김소영, 「청년노숙 경로에 관한 연구: 노숙진입과 노숙생활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사회복지학) 2016.8
- 김시아, 「비행청소년의 탈비행 너머: 돕는자로서의 삶」,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9, vol.50, no.1, pp. 71-100
- 노혜진, 「빈곤가구 자녀의 노동시장 진입과정 유형화」, 사회복지정책, 2012, 39(4), 109-134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2012년 다시서기 사업보고서」, 다시서기종합센터, 2012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2013년 다시서기 사업보고서」, 다시서기종합센터, 2013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2014년 다시서기 사업보고서」, 다시서기종합센터, 2014
- 서울시 (2016a). "16년 노숙인 일자리 종합지원 계획", 서울시 자활지원과-3035,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2016. 3. 8.
- 신명호, 「노숙발생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 남성노숙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와 빈곤, 2011, 90, 13-44.
- 이유경, 「중학교 남학생의 가출 특징 및 요인에 관한 연구: 수원시내 남자중학생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이옥란, 공미혜, 홍봉선, 남미애, 장수한, 「부산지역여성 청소년의 가출에 대한 의식과 실태 및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상담실, 1998
- 조성기, 김용석, 김정우, 김성천, 제갈정, 「초등학생과 청소년의 음주실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11
- 조흥식·강철화·남기철 외,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조직 전략」, 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지창희, 「중학생의 가출 원인 및 성격요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최현미, 「위기가족의 갈등해소 및 공동체적 가족문화형성을 위한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개발」, 보건복지부, 2018.12.19

한상철(1999a), 「소외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화 모형과 정책적 대안」, “소외청소년을 위한 정책대안” 심포지움 자료집, 한국청소년학회

허준수, 「노숙자쉼터 입소자들의 입소 기간별 특성 및 입소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19호, 2002

## 국외

Aubry, Tim, Klodawsky, Fran, Hay, Elisabeth & Birnie, Sarah (2003) Panel Study on Persons Who Are Homeless in Ottawa: Phase 1 results (Ottawa, Centre for Research on Community Services).

Ayerst, S. L. (1999). Depression and stress in street youth. *Adolescence*, 34(135), 567-575.

Baron, S. W., & Hartnagel, T. F. (1998). Street youth and criminal violenc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 Delinquency*, 35(2), 166-192.

Beaudry, Paul & Green, David A. (1998) Individual Responses to Changes in the Canadian Labour Force,

Canada in the 21st century III. Responding to the challenges (Ottawa, Industry Canada).

Clatts, M. C., Goldsamt, L., Yi, H., & Gwadz, V. (2005). Homelessness and drug abuse among young men who have sex with men in New York City: A preliminary epidemiological trajectory. *Journal of Adolescence*, 28(2), 201-214.

Recommended Practices: To Promote the Safety and Well-Being of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Questioning (LGBTQ) Youth and Youth at Risk of Living with HIV in Child Welfare, CHILD WELFARE LEAGUE OF AM. 6 (2012),

<http://www.lambdalegal.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s/downloads/recommended-practices-youth.pdf>

The Williams Institute, UCLA, “Serving Our Youth: Findings from a National Survey of Service Providers Working with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Youth Who Are Homeless or at Risk of Becoming Homeless.” [williamsinstitute.law.ucla.edu](http://williamsinstitute.law.ucla.edu), 2012

<http://williamsinstitute.law.ucla.edu/wp-content/uploads/Durso-Gates-LGBT-Homeless-Youth-Survey-July-2012.pdf>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Seeking Shelter: The Experiences and Unmet Needs of LGBT Homeless Youth.” americanprogress.org, 2013

<https://www.americanprogress.org/wp-content/uploads/2013/09/LGBTHomelessYouth.pdf>

The Williams Institute, UCLA, and the True Colors Fund, “Serving Our Youth: The Needs and Experiences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Youth Experiencing Homelessness.” truecolorsfund.org, 2015

<https://truecolorsfund.org/wp-content/uploads/2015/05/Serving-Our-Youth-June-2015.pdf>

National LGBTQ Task Force, “Task Force: Homelessness is a Critical Issue for the LGBT Community,” thetaskforce.org, 2016

<http://www.thetaskforce.org/task-force-homelessness-is-a-critical-issue-for-the-lgbt-community/>

National Alliance to End Homelessness, “Supporting Homeless Transgender and Gender Non-Conforming Youth,” endhomelessness.org, 2011

[http://www.endhomelessness.org/page/-/files/4593\\_file\\_trans\\_onepager\\_final.pdf](http://www.endhomelessness.org/page/-/files/4593_file_trans_onepager_final.pdf)

True Colors Fund, “Homeless Shelters Will Soon Be Safer for Transgender Folks,” dev.truecolorsfund.org, 2016

<https://dev.truecolorsfund.org/2016/09/20/homeless-shelters-will-soon-be-safer-for-transgender-folks/>

National Sexual Violence Resource Center, “Youth Sexual Violence Infographic,” nsvrc.org, 2014

<http://www.nsvrc.org/publications/nsvrc-publications-infographic/homeless-youth-sexual-violence-infographic>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On the Streets: The Federal Response to Gay and Transgender Homeless Youth.” cdn.americanprogress.org, 2010

<https://cdn.americanprogress.org/wp-content/uploads/issues/2010/06/pdf/lgbtyouthhomelessness.pdf>

National Alliance to End Homelessness, “LGBTQ Homeless Youth Fact Sheet.” safeschoolscoalition.org

<http://www.safeschoolscoalition.org/LGBTQhomelessFactSheetbyNAEH.pdf>

## 별첨 1: 참여연구진 후기

### (1) 손건희

<p><b>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b></p>	<p>청소년 경로분석을 통한 정책제안에 참여한 연구에서 나는 청소년기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따뜻한 가정환경이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가출청소년에 대해서 어른들은 집안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 집안에 원인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다양한 이유로 가출을 많이 하겠지만 대부분은 예민한 청소년기인 우리에게 공부를 잘 하거나 바라시는 세상과 나의 생각을 함께 나눌 부모님과과의 대화 부족인 가정 안에 문제와 집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집안의 분위기가 거북스러워 나오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p>
<p><b>더 깊이 탐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b></p>	<p>청소년의 학문적 특성을 중심으로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와 가출 발생 배경을 연구해야 한다.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및 관련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 그리고 그들만의 문화와 심리적, 행동적 문제를 잘 파악하여 청소년 지도, 활동, 상담에 대한 이론과 방법을 찾고 생활환경을 개선 및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법, 행정, 복지, 인권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p>
<p><b>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b></p>	<p>지금 청소년들이 조금만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더 나은 아이들로 자랄 수 있는 복지단체가 많이 생기고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p>
<p><b>(기타) 전달 또는 공유하고 싶은 얘기</b></p>	<p>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출한 아이라면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거 같고, 집안 문제로 인한 가출이라면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상담 체도가 필요할 것 같다. 가출청소년 경로분석을 통한 정책제안에서 학교폭력 가해자, 위기청소년 및 비행청소년 등이 가출해 다른 곳에서 지내다 결국 소년원으로 가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게 느껴진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할 수는 없는지 찾아보고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p>

## (2) 최하은

<p><b>내 친구가 가출청소년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b></p>	<p>내가 생각하기에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청소년들이 가출을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가출청소년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한다고 할 수 있지만 나는 다를 것 같다. 가출청소년은 청소년들이 다시 한 번 인생에서 큰 시련을 넘기는 일종의 단계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 같은 경우는 친구를 옆에서 작은 도움이 되는 말이나 친구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지만 가출을 하면 어떤 일들이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친구를 옆에서 너무 압박감을 느끼지 않도록 설득을 조금씩 시키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 것 같다.</p>
<p><b>가출청소년 예방을 위해 내가 앞으로 청소년기에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b></p>	<p>나는 가출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모든 것이 꼭 대단하고 주변사람들에게 '너 정말 대단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가출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출청소년은 믿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가출청소년들과 1박2일 캠핑을 간다거나, 놀이공원, 소풍, 떡볶이 먹기 등 내가 친구들과 놀듯이 이런 사소한 것들을 가출청소년들과 해보고 싶다. 사람들은 가출청소년이라고 하면 안 좋은 부분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내 친구라고 생각하면 가출청소년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p>
<p><b>이번 연구과제 참여를 통해 느낀 점은?</b></p>	<p>처음에 '가출청소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연구과제를 통해 가출청소년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마음도 함께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넷임팩트를 통해서 가출청소년에 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가출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가출청소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가출청소년의 마음을 움직일까'에 대한 답을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출청소년에 대해 좀 더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던 같다.</p>

### (3) 유한석

<p><b>미래에 내 자녀가 가출을 한다면</b></p>	<p>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마음이 아프겠지만 자녀가 가출을 결심하기까지 부모의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될 거 같다. 물론 뜻하지 않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가출을 결심할 수 있겠지만, 유아기 때부터 자녀에 대한 충분한 사랑과 관심이 뒷받침 되었다면 집을 나가는 행위에 대해 자녀도 한 번쯤은 신중한 고민을 통해 결정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래도 만약 자녀가 가출을 하게 된다면 강제로 아이를 야단치기보단 가출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어보고 충분한 타협점을 만들어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는 기회의 장으로 삼을 것 같다.</p>
<p><b>가출청소년 예방을 위해 3년 이내에 해보고 싶은 것</b></p>	<p>가출을 권유하거나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본인이 정말 출타를 원한다면 말리지 않을 생각이다. 사람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 자신이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노력을 요하는지 모르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요인들이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생각만을 심어 줄 수 있을 거란 생각보단 어려서부터 책임감과 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거란 기대감도 무시하긴 힘들기 때문에 본인이 출타를 진정으로 원하는 입장이라면 충분히 이야기를 통해 함께 할 것을 강조·설득하겠지만 뚜렷한 목표의식이 보인다면 굳이 말리고 싶진 않다. 그렇지만 청소년기에는 자신만의 확고한 사상이나 신념이 자리 잡기엔 많이 부족하기에 어렸을 때부터 자신만의 확고한 의식과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멋진 인생을 살게끔 도와줄 수 있는 강연 프로그램이나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기를 수 있는 환경시설도 확충할 수 있다면 그렇게 실행에 옮기고 싶은 바람이다.</p>
<p><b>이번 연구과제 참여를 통해 느낀 점은?</b></p>	<p>사실 매번 흥미로운 주제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직면하면서 사회는 모순덩어리란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그렇지만 사회의 모순점이 없다면 모두가 하나의 답을 찾고 하나의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든다. 누군가 문제점이라 판단하는 것들이 누군가에겐 더욱 성숙해 질 수 있는 경험과 기회가 될 것이고 아픔을 통해 배우는 성숙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강한 의지를 부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흥미로운 주제들을 많이 연구해보고 참여해보고 싶다. 연구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주셔서 감사하다.</p>

## (4) 기하영

<p><b>이번 연구과제 참여를 통해 느낀 점은?</b></p>	<p>평소 뉴스에서만 보던 큰 사건, 그러니까 가출청소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내가 직접 어떠한 대안을 제안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뜻 깊었다. 또, 가족이나 학교 친구들의 가출 청소년에 대한 생각을 물었을 때 비행청소년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심겨있어 유감이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가출청소년들이 비행청소년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가출청소년이 가출한 이유에 대한 자료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본 자료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출사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었는데 이처럼 정말 어쩔 수 없는 이유로 가출한 청소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우리가 위같이 바보 같은 고정관념을 깨고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해줄 수 있게 된다면 세상은 더욱 더 아름답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활동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선한 영향을 미쳐 하루 빨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누구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평화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p>
<p><b>내 친구가 가출청소년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b></p>	<p>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배운 점을 토대로, 만약 내 친구가 가출청소년이라면, 부모님이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경우에는 청소년 쉼터라는 공간을 알려주고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며 친구가 범죄의 길로 빠져들지 않게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부모님과 가버운 갈등 등의 문제로 가출을 하게 된다면 상담센터의 전화번호나 사이트를 알려주며 부모님의 입장도 생각해보며 최대한 타협점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줄 것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할 것이다. 이 또한 가출에 대한 경각심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일 수 있기 때문이다.</p>
<p><b>가출청소년 예방을 위해 3년 이내에 해보고 싶은 것</b></p>	<p>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만들어 나갔다. 만약 내가 가출청소년 예방을 위해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실제 가출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가출을 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본인들이 직접 제안한 가출 예방 방침을 토대로 새로운 예방 방법들을 만들고, 그 방법이 실제로 얼마나 긍정적일지 혹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지 근거와 함께 판단해보고 싶다.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닌, 가출청소년들 본인들의 경험을 토대로 나오는 이야기기기에 하나하나 귀담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효과는 거대할 것이라 예상된다.</p>

## (5) 김태훈

<p><b>미래에 내 자녀가 가출을 한다면</b></p>	<p>언제든 돌아올 자리가 있고, 내 아버지는 나를 달가워하지 않았을지언정, 난 너를 절대 버리지 않고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심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표현하려고 할 것이다.</p>
<p><b>가출청소년 예방을 위해 3년 이내에 해보고 싶은 것</b></p>	<p>원조교제하는 여자아이들과 이야기해보기, 가출청소년과 같이 살아보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고 느끼는 작업이 단 며칠이라도 필요할 거 같다.</p>
<p><b>이번 연구과제 참여를 통해 느낀 점은?</b></p>	<p>인간은 원래부터 불안전하고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민주주의의 시작도 따지고 보면, 인간이 불안전하고 미약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입장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지 못했을 때 편견이 일어나고, 편협한 사고를 가지게 되고 서로를 공정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 우리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 있고,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행동이 달라지고 불안정하면 상황과 무관하게 방종하게 된다. 불안정해서 방종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 않나, 불안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다. 서로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권은 사회나 개개인이 안정적인 때 비로소, 가장 빠르게 성장한다.</p>

## (6) 장윤제

<p><b>이번 연구과제 참여를 통해 느낀 점은?</b></p>	<p>처음에 가출청소년에 관련된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조금 걱정되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님의 보호를 받으며 사회적으로 도움 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이를 벗어나서 사회로 직접 나가 가출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청소년들이 가출한 이유는 상처를 받았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뷰하고 연구를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내가 가출청소년들과 관련한 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이 더 상처를 받고 문제가 생기면 어쩌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걱정과는 달리 가출청소년들은 따뜻했다.</p>
<p><b>인터뷰 수행 정리 하면서 배운점</b></p>	<p>인터뷰할 때도 서툴지만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을 잘 얘기해 주었다. 또한,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지는 않았지만, 녹음된 인터뷰 내용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출청소년들이 얼마나 어렵고 사회에서 보호 받아야 하는지 느껴졌는데 그럴 때 많이 안타까움을 느꼈다. 내가 가출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그저 그들이 왜 가출을 하는지, 가출을 하고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뿐이라서 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다.</p>
<p><b>가출청소년 예방을 위해 3년 이내에 해보고 싶은 것</b></p>	<p>하지만 이번 연구는 가출청소년들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고 바라보던 내가 있었고 그러한 내 자신에 대해 다시 깊이 있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나는 앞으로 가출청소년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우리가 가출청소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도움을 주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연구할 것이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와 비슷한 주제의 좋은 연구 프로젝트에 다시 한 번 참여해보고 싶다.</p>

## (7) 한상준

<p><b>내 아이를 위한 변화의 필요성</b></p>	<p>‘홈리스 청소년들은 왜 집을 나와 살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작은연구 좋은서울’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해당 연구를 진행하며 청소년들이 집을 나와 홈리스가 되어가는 과정과 그 원인들을 보게 되었다. 원인은 경제적인 것이기도 했으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목격하며 향후 내 아이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가출을 하고, 홈리스 청소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변졌다. 일단 청소년 가출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가장 큰 원인은 부모의 양육방식과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내 자녀의 가출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나일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로부터 가출 원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내 아이의 가출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원인임을 인정하고 아이에게 다가간다면 충분히 마음을 돌릴 자신이 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어른들의 진심 어린 반성과 변화일 것이다.</p>
<p><b>사회 변화를 이끄는 작은 활동으로</b></p>	<p>내 아이를 위한 나만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출청소년 예방을 위해 작은 사회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주는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싶다. 최소 3년 이내에 가출청소년 센터와 지속적인 교류를 하며 그곳에서 활동하는 선한 분들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 내가 성장함에 따라 내가 가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경제적,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 홈리스들은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구성원이 누릴 수 있는 대부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이다. 이들은 포용적사회국가가 지향하는 인권, 안전, 상생 등 다양한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청소년 홈리스를 공식적인 명칭으로 지정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 그리고 타겟화된 관심과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p>

## (8) 김조섭

### 이번 연구과제 참여를 통해 느낀 점은?

먼저 청소년 정책 연구위원회에 연구자로 활동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서울연구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기치 않았던 임신으로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들이 자녀 보육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끝까지 공교육을 이어갈 수 있는 정책으로 학교 내 보육센터를 설치하여 한 장소에서 학습과 자녀 돌봄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본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함에 있어서 성찰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1. 아시아권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행해지는 프로그램들을 연구하였는데, 제가 직접 목도했기에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었으며 자료들이 영어로 되어 있어서 연구가 수월했습니다. 반면, 한국과 비슷한 사회 분위기와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권의 정책이 궁급하였지만 영어로 제공되는 자료가 희귀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향후 시간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당국가 기관에 영어자료를 요청해 연구를 다각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2. 탐방과 실무자 접촉에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안한 북미의 학교 내 보육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실무자들과 개별접촉을 해서 그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을 담았다더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단점들을 보완해 더 완성도 있는 정책을 제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산이 주어져서 탐방을 할 수 있었다더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입니다.

3. 점진적 모델을 연구함에 있어 미흡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미혼모, 특히 10대의 어린 미혼모에 대한 편견은 아직도 광범위하고 뿌리 깊어서 도덕적으로 큰 흠결이 있는 청소년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편견 때문에 북미처럼 공교육 기관에서 탁아시설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미혼모의 신분을 드러내고 공부와 양육을 동시에 하는 데는 당사자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일 것 입니다. 별도로 그런 학생들만 재학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는데, 그 두 가지 모델을 절충해서 점진적인 프로그램을 연구했다더라면 좀 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수월했을 것입니다.

4. 실제 10대 미혼모들과 폭넓은 만남이 아쉽습니다.

제가 미혼모가족협회에서 인턴을 하고, 한국 미혼모들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논문을 쓰면서 많은 미혼모 가정을 만나고 그들이 처한 어려움의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현장에서 오랫동안 미혼모 가정을 위해 헌신해 온 분들의 생생한 소리도 들을 수 있었으나, 10대 미혼모들과 폭 넓은 만남을 갖고 그들의 의견을 듣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가솔해 몸을 숨겨야 했던 그들의 애로사항을 더 들을 수 있었다라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9) 강유진

<p><b>이번 연구과제 참여를 통해 느낀 점은?</b></p>	<p>이번 서울연구원에서 진행해주신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해오던 일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키워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동정과 공감에서 시작되었던 봉사활동을 이제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이를 통해 제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p>
<p><b>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배운 점</b></p>	<p>연구과제 수행 후 2019년 9월부터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북한 이탈 주민과 청소년을 돕기 위한 기부행사를 하였고 기부금을 모아 북한 이탈 주민에게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 주는 비영리 단체에 전달하였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KOREA Unification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컨퍼런스에 고등학생 자격으로 참석하여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캠프를 진행하며 느꼈던 점 그리고 탈북 청소년들의 스토리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에서 온 연설자들의 내용을 들으며 배운 점도 많았지만, 이번 여름과 가을 서울연구원과 함께 해온 홀리스 청소년 경로분석을 통한 정책제안 연구과제에 참여했던 경험이 저의 스피치에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p>
<p><b>본인이 3년 이내에 해보고 싶은 것</b></p>	<p>저는 서울연구원의 청소년 연구위원으로서 지난 몇 개월 동안 기출청소년 경로분석을 통한 정책을 (북한이탈청소년 대상으로) 연구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고등학생이 그 과정을 추적하고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저는 이미 9학년(한국학제로는 중3) 때부터 북한 이탈 주민들과 관련된 봉사를 하고 있어서 탈북 청소년들이 북한을 떠나 한국으로 들어오기까지 집 없이 지내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p> <p>이들 탈북청소년들과의 만남과 인터뷰를 통해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고 어떠한 정책을 제안하는 일이 더 멀게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행이 각 국가의 정치 상황과 그들 국가 간의 이해관계로 국가차원의 도움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p> <p>지금 생각해보니 이 연구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저 자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동정심으로만 해오던 봉사 활동에 제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고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p> <p>대학에 가면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보고 싶습니다. 한 명이 알고 있는 것을 사회에 공유하고 그 이야기가 퍼져나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p>

(10) 유경채

<p><b>내 친구가 가출청소년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b></p>	<p>제 친구가 만약 가출청소년이라면 저는 제 친구가 왜 가출을 하려는지 물어보고 그 친구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싶습니다. 가출청소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에 더 이유를 물어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분명 제가 시도하기 어려울 수 있고 확실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가족도 선생님도 아닌 친구에게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저는 대화로 도움을 줄 것입니다.</p>
<p><b>가출청소년 예방을 위해 내가 앞으로 청소년기에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b></p>	<p>제가 만약 30이 되어서까지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저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즐겁게 놀고 공감대를 형성하여서 그들이 외롭지 않게 해 주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가출청소년 이었다면 저도 제가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싶을 것이고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렵기에 외롭기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인 모임만으로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집을 가출할 만큼 어른들에게 고통 받고 아픈 마음을 즐거움으로 해소시킬 수 있다면 저는 그들과 되도록 많이 만나서 각자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를 이루어 주고 싶습니다.</p>
<p><b>이번 연구과제 참여를 통해서 느낀 점은?</b></p>	<p>이번 연구과제를 통해 느낀 것은 가출청소년이 가출하는 이유가 단순히 가출하고 싶었던 것뿐 아니라 가족 간의 갈등 및 대화 부족으로 인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출의 문제가 많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많은 아이들이 억울하게 또는 가족 간의 대화로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을 느꼈습니다.</p>

## (11) 진성일

<p><b>미래에 낳을 내 자녀가 가출을 하게 된다면?</b></p>	<p>미래에 나의 자녀가 가출을 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부모인 나에게 책임과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 거 같다. 연구 결과 가출청소년들은 가정의 문제와 불화가 생겼을 때 가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자녀의 행방을 모색을 하고 그 후에 다그치지 않고 함께 얽혀있는 갈등과 문제점에 대해서 부모의 고정적인 시선이 아닌 자녀를 이해하며 함께 실마리를 풀어 나갈 수 있는 대화의 자리를 만들 것이다.</p>
<p><b>가출청소년 예방을 위해 내가 앞으로 청소년기에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b></p>	<p>가출청소년 예방을 위하여 우선적으로는 청소년들의 가출 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싶다. 가출청소년들에게는 가출하였을 시 의, 식, 주에만 힘든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 상태, 범죄 등의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싶다.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홍보물이나 포스터들을 보면 대부분 청소년 쉼터 등 보호시설의 홍보물들만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미리 가출 후의 위험 요소들을 홍보한다면 가출청소년들의 수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그뿐만 아니라 홍보물을 부모님과 청소년, 이 두 타깃으로 지정하여 가출의 위험성을 받아들이 수 있는 홍보물 제작이 필요할 것 같다. 홍보물은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채널이나 게임회사와 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청소년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보고 싶다.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을 찾을 수 없듯이 온라인의 힘은 가장 크기 때문에 가출에 대해서 생각하는 청소년들, 가출을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 이미 가출한 청소년들을 위해 안정 보장 장치로 가출지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보고 싶다.</p>
<p><b>이번 연구과제 참여를 통해서 느낀 점은?</b></p>	<p>나는 쉽게 길거리를 다니며 성인 노숙자 분들을 많이 보았다. 그러나 가출청소년들을 길거리에서 쉽게 접하지는 못하여서 심각성에 대해 잘 인지를 하지 못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연구를 시작하고 다양한 리서치들을 다루며 많은 가출청소년들이 현재 청소년 쉼터나 보호소, 가출청소년들끼리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적지 않게 놀라게 됐다. 그만큼 우리 어른들이 아직 가출청소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다. 청소년들은 어른들에 비해 판단력도 느리고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기 전인데 그 한 번의 가출 결심으로 그들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 편이 무거웠다. 그 청소년들이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하는데 어른들의 무관심, 안일한 처우로 인해 힘들어한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들이 많지만 청소년부문에 좀 더 어른들이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 모든 청소년들이 따뜻한 가정 아래서 사랑받으며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많이 들었다.</p>

(12) 김경주

<p><b>가출청소년 예방을 위해 3년 이내에 해보고 싶은 것</b></p>	<p>‘청소년 경로분석을 통한 정책제안’의 청소년 연구원 참여로 나의 청소년 시기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청소년 가출 예방을 위해 해야 할 일과 해보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p> <p>첫째, 제가 지금 동아리장을 맡고 있는 청심 SOS 부원들과 청소년 가출 문제와 가출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해보고 싶습니다.</p> <p>둘째, 가출청소년에 관련된 정기 소식지나 각종 자료집을 만들어 출판하고 싶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홍보)</p> <p>셋째, 내년에는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또래상담’이라는 동아리에 가입해서 친구들과의 고민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p> <p>넷째, 청소년 지도사라는 자격도 가지고 싶습니다.</p> <p>마지막으로 청주 미평여자학교에 방문해서 가출청소년과 상담해보고 싶습니다.</p>
<p><b>이번 연구과제 참여를 통해서 느낀 점은?</b></p>	<p>중학교 때 부모의 방임으로 인해 센터에 들어오게 된 어린동생의 영어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어린동생의 미래를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그때 느꼈던 생각과 고민이 이번 청소년 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 많이 흡사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p> <p>제일 중요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결손가정, 빈곤가정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가족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청소년 학대가정 등 문제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p> <p>학교 내 체벌금지, 학교상담의 기능강화와 다양한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 활성화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 활동 등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p> <p>비행 등의 문제로 인해 학교에서 징계, 처벌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아무런 대안 없이 무작정 학교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는데 이들을 위한 교육 및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빈곤 및 청소년 비행 발생 다발 지역에 대한 환경도 정비하고 복지 정책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우리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며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공간, 시설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 (13) 이주홍

<p><b>이번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하고 싶은 말</b></p>	<p>나는 넷임팩트 프로젝트로 가출청소년이 가출하게 되는 이유에 대한 영상을 제작했다. 찍을 당시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성찰문을 쓰게 되니 생각이 많아진다. 이번 성찰문에서 내가 쓰게 될 내용은 가출의 대한 솔직한 내 의견이다.</p> <p>‘집 나가면 고생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 괜히 존재하는 게 아니다. 나와 같은 청소년기에는 법정대리인 즉 보호자가 없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어쩔 수 없이 무소속자가 되는 것이다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또 없어지고 그러므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집 나오는 순간 고생이 시작되는 것이다.</p> <p>아무리 가출하는 이유가 크고 거창한 이야기라 해도 가출한 후에 이야기가 훨씬 크고 거창해지기에 가출은 방법도 도망도 아니다. 갈등이 생기면 해결 할 생각을 해야지 집 나갈 생각을 하면 갈등은 더 커지고 고생도 더 하게 된다.</p> <p>내 생각은 이거 하나이다 “...가출은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저 자신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더 힘든 길로 가는 것뿐이다...”</p> <p>가출을 생각하기 전에 자신의 미래와 상황을 먼저 생각하자!</p> <p>이것으로 성찰문을 마치겠습니다.</p> <p>감사합니다.</p>
--------------------------------------	---

(14) 조범수

<p><b>이번 연구과제에서 했던 것</b></p>	<p>지금까지 저는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논문을 분석하고 번역하여 요약하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 과제를 하면서 가출청소년 문제에 대한 세계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또한 무엇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관심 있는 기사를 골라 직접 번역하고 그 사회문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가출의 계기 중 부모님과과의 다툼을 주제로 한 1인극을 했습니다. 영상 편집 학원을 다니고 기술을 배운 다음 제가 원하는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1인극이었던지라 도움을 받을 곳이 많이 없었고 장소도 알아서 찾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완성했을 때는 혼자서 성공했다는 성취감이 더 컸고 '1인극도 찍는데 다른 무언가를 못 찍겠냐?'는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p>
<p><b>본인이 3년 이내에 해보고 싶은 것</b></p>	<p>이번 과제 수행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구체적인 분야로 팀이 나누어져 있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 피드백을 못 받고 혼자서 너무 킁킁대면서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영상 촬영에 있어서 개인으로는 장소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저는 대부분 재연과 가출청소년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만일 이번과 같은 프로젝트가 한 번 더 진행된다면 정책 추천과 같은 분야에서도 아이디어를 내면서 활동해보고 싶습니다.</p> <p>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던 유익한 활동이었습니다.</p>

# 별첨 2: 가출 및 노숙 청소년 마인트페인팅

별첨 2: 가출 및 노숙 청소년 마인트페인팅

**가출청소년의 마인트페인팅**

자기색을 원하는 이시대의 청소년에게  
**PERSONAL COLOR- 나를 향해 떠나는 색깔 여행**

나를 구성하는 색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의 색은?

나의 비밀의 색은?

나를 표현하는 색은?

내가 가장 좋아 하는 색은?

MY PERSONAL COLOR  
 "나 이래봐도 색깔있는 사람이야~~~"

나의 미래의 색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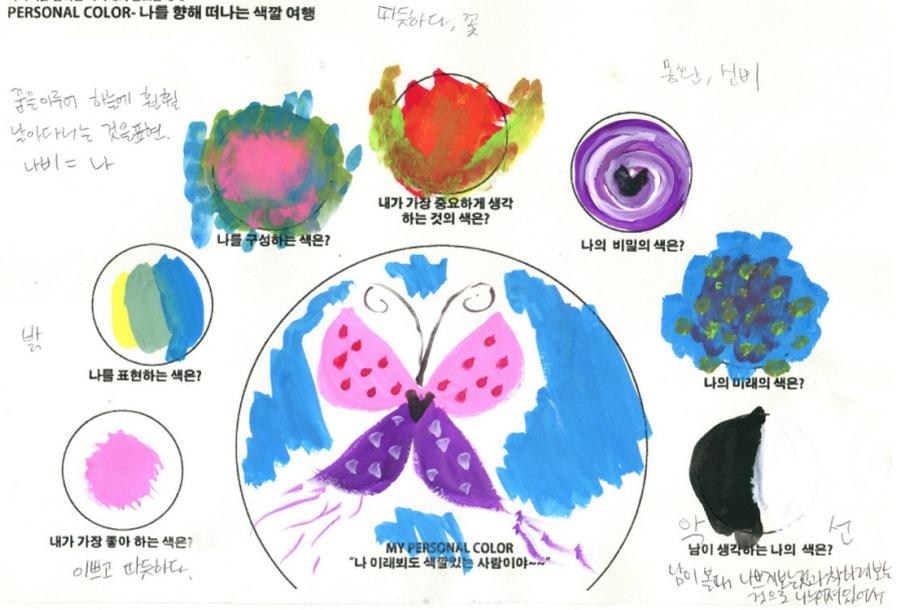
남이 생각하는 나의 색은?

## 노숙청소년의 마인드페인팅(1)

자기색을 원하는 이시대의 청소년에게  
PERSONAL COLOR- 나를 향해 떠나는 색깔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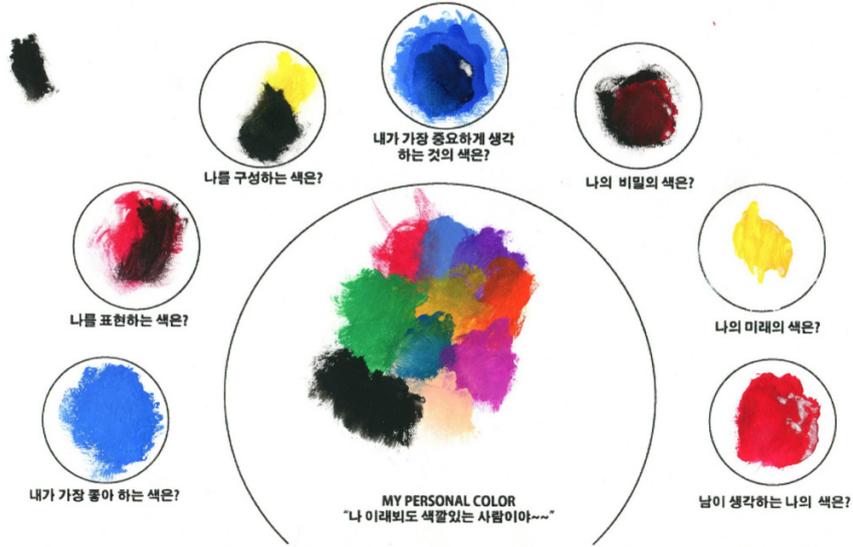


자기색을 원하는 이시대의 청소년에게  
PERSONAL COLOR- 나를 향해 떠나는 색깔 여행



노숙청소년의 마인드페인팅(2)

자기색을 원하는 이시대의 청소년에게  
PERSONAL COLOR- 나를 향해 떠나는 색깔 여행



자기색을 원하는 이시대의 청소년에게  
PERSONAL COLOR- 나를 향해 떠나는 색깔 여행





## 노숙청소년의 마인드페인팅(4)

자기색을 원하는 이시대의 청소년에게  
PERSONAL COLOR- 나를 향해 떠나는 색깔 여행

내가 생각한다. 약간의 영계도 생각한다. 귀를 흘리면 영계가 어떻게 존재하게 생각한다. (정신적이다.)

분하다. 특히 우주가 나오는 느낌도 같다. 재미도 다르다.

밝은데 밝다. 그렇게 맑고 밝다. 미래가 밝다. 낭만적이다.

갈망이었다. 젊은 느낌 같다. 애매하다.

나를 구성하는 색은? 분하다. 내가 단순하게 내린 귀색이다. 투명하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의 색은? 분하다.

나의 비밀의 색은? 분하다.

나를 표현하는 색은? 분하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분하다. (하얀색, 귀색)

나를 구성하는 색은? 분하다. 내가 단순하게 내린 귀색이다. 투명하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의 색은? 분하다.

나의 비밀의 색은? 분하다.

나를 표현하는 색은? 분하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분하다. (하얀색, 귀색)

이분하면 정감한다.

MY PERSONAL COLOR

자기색을 원하는 이시대의 청소년에게  
PERSONAL COLOR- 나를 향해 떠나는 색깔 여행

나는 내가 설계한 집에서 살고 싶다. 따뜻한 느낌의 활력과 내가 혼자 하는 분홍색은 온고여저 지을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분홍색과 보라기분 이 좋아하는 노랑색을 구성했다.

나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색은 노랑과 어두운 색입니다.

관색은 온전한 느낌이 있어 나의 비밀과 비정한 느낌이 있다.

나를 구성하는 색은? 분홍색과 노랑색.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의 색은? 노랑색.

나의 비밀의 색은? 분홍색.

나를 표현하는 색은? 분홍색과 노랑색.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분홍색과 노랑색. 나한테 핑크색이 잘 어울려서.

나의 미래의 색은? 분홍색과 노랑색. 향기롭고 차분하게 살 것이다.

남이 생각하는 나의 색은? 분홍색과 노랑색. 나는 분홍색이 잘 어울리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되는 것이다.

MY PERSONAL COLOR

## 노숙청소년의 마인드페인팅(5)

자기색을 원하는 이시대의 청소년에게  
**PERSONAL COLOR- 나를 향해 떠나는 색깔 여행**

내 미래가 <sup>어둡고</sup> <sup>어두워</sup> <sup>갈다</sup>  
떠날 때는 <sup>모습으로</sup> <sup>상징</sup>  
- <sup>외판</sup>

내 미래가 어둡거나 흐릿하게 보  
라게 되면서 밝아 지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어둡지만 그러한  
내 마음이 밝아 질려고 노력  
하고 있는 모습

나를 구성하는 색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는 것의 색은?  
나의 비밀의 색은?  
나의 미래의 색은?  
남이 생각하는 나의 색은?  
내가 표현하는 색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MY PERSONAL COLOR  
"나 미래에도 색깔있는 사람이야~~"

자기색을 원하는 이시대의 청소년에게  
**PERSONAL COLOR- 나를 향해 떠나는 색깔 여행**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는 것의 색은?  
나의 비밀의 색은?  
나의 미래의 색은?  
남이 생각하는 나의 색은?  
내가 표현하는 색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MY PERSONAL COLOR  
"나 미래에도 색깔있는 사람이야~~"

내 마음의  
피

진한분홍  
파도소리, 대강줄  
바사나  
세바다  
망고이네바

수많은  
모든것과  
관련하는  
작은영

천국  
지옥

→ 피로색  
→ 견디는색  
- 눈물색  
파도소리  
다정  
내보냈다

---

작은연구 좋은서울 19-07

홈리스(노숙·가출·가정 밖)  
청소년 경로분석을 통한 정책제안

---

**발행인** 서왕진

**발행일** 2019년 11월 24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